Sulwhasoo

VOL.75 SEPTEMBER/OCTOBER 2016

VOL.75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6

Sulwhasoo

VOL.75 SEPTEMBER/OCTOBER 2016

1966년에 탄생한 'ABC 인삼크림' / 2016년에 탄생한 '자음생크림 1966 리미티드'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이전 호들과는 다른 표지에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처음 보는, 그러기에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그런 느낌의, 단아한 한 장의 제품 사진입니다. 사진 속 '자음생크림 1966 리미티드'는 1966년 최초로 선보인 'ABC 인삼크림'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설화수의 근본을 만든 모태이자 혁신적인 인삼 화장품인 'ABC 인삼크림' 탄생 50주년을 맞이해 반세기 헤리티지를 담아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판매는 되지 않지만 이 제품 속에는 인삼과 설화수, 그 아름다운 소통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인삼을 향한 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된 'ABC 인삼크림'이 탄생한 1966년과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설화수의 2016년이 만나, 시대를 넘어선 영험한 제품력으로 다시 한 번 진한 감동의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ABC 인삼크림'을 모티브로 백자의 소재와 형상을 재현한 용기는 한국 백자의 유려한 곡선과 은은한 광택을 담아내 조화로운 아름다움은 물론 전통의 미학과 깊이를 전달합니다. 정성과 집념의 과정으로 탄생한 '자음생크림 1966 리미티드'를 통해 설화수가 선사하는 홀리스틱 뷰티의 세계를 오롯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터 권지애

You may have already noticed and wondered why the cover is different from other issues. It is a simple product image that may seem both unfamiliar and familiar because you have not seen something like it before. In celebration of its 50th anniversar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1966 Limited)' is a special limited edition that has modernly reinterpreted the 'ABC Ginseng Cream' that was first launched in 1966. The last half of the century's heritage has been captured in its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ABC Ginseng Cream,' which is an innovative ginseng cosmetic product and an essential origin of Sulwhasoo. Although it will not be sold in the market, it cherishes the history of the beautiful combination of ginseng and Sulwhasoo. The 1966 version of the 'ABC Ginseng Cream' was born with a passion toward ginseng and introduced to its 2016 version when Sulwhasoo was shared with the world to bring us another lingering echo of impression with its timeless and miraculous products.

The container has been inspired by 'ABC Ginseng Cream' to recreate the texture and form of white porcelain. It has captured the beautiful curves and delicate gloss of Korean white porcelain, and it displays harmonious beauty, as well as the aesthetics and depth of tradition.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a world of holistic beauty that Sulwhasoo offers through it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1966 Limited)', which is a product of devotion and tenacity.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6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 ·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6,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펼 치 다

누 리 다

익 히 다

Sulwhasoo

VOL.75 SEPTEMBER/OCTOBER 2016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제천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기획 및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윤형

발행일·2016년 9월 1일(통권 제75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신인팩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08
품격 있는 삶
투철한 기록 정신과 빛나는 기록 문화

12
피부 섬기기
인삼의 내공을 그대로 담아 태어나다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어머니 경대에서 본 듯한 '설화수'와 조우하다

22
新 공간을 보다
궁궐 속 작은 도서관에 들어서니

28
건너다
자연을 품은 거대함, 그 안에서 찾은 自然의 美

36
설화인
아름다움으로 흘러가는 계절, 그녀를 듣다

44
어우러지다
맛나는 소통의 공간에 머물다

50
설화풍경
바람을 가르는 갈대의 소리

54
설화보감
추석입니다,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세요

60
아름다운 기행
도시, 호수의 잔잔함을 품에 안다
춘천 & 타우포

66
설화수를 말하다
가치로서의 인삼, 모든 것을 담다

72
설화 히스토리
아름다움의 초상 설화수 50년의 기록

78
설화수 뉴스

82
배움의 기쁨
일상의 꿈과 소망을 그리다

86
한국의 멋
정성과 지혜를 담다

88
설화애장
온 마음과 따뜻한 손이 만든 이야기

90
집 안 단장
공간을 비추다, 시공을 감싸다

92
몸 단장
이토록 사랑스러운 단풍 컬러

94
문화 즐기기

96
프로덕트 맵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치다

투철한 기록 정신과 빛나는 기록 문화
Dedication to the records and impressive cultural archives

**중요한 일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해두는 건 인류의 오랜 전통이지만,
이 땅의 기록 문화엔 좀 더 특별한 무엇이 있다.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데 들이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원칙. 한민족은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의 민족'이다.**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곽예진

대표적인 기록물로 꼽히는 〈조선왕조실록〉만 해도 그렇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장장 472년간 이어진 기록. 888책 1893권 6400만 자에 이르는 이 방대한 실록은 단일 역사서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명나라의 〈대명실록〉이나 청나라의 〈대청역조실록〉은 기간이 300년이 채 안 되고, 일본에는 몇몇 천황들의 치세를 기록한 〈문덕실록〉과 〈삼대실록〉이 있지만 규모 면에서 전혀 비할 바가 못 된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진정한 가치는 규모보다는 공정성에 있다. 기록을 맡은 사관들은 말단 서기가 아니라 독립성과 비밀성을 보장받은 전문 관료들이었다. 그들은 임금의 치적뿐 아니라 실정과 폭정까지도 낱낱이 사초私草에 담았으며, 국왕의 열람이나 수정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다. 조선의 역대 임금들 중 누구도 자기나 선왕들에 관한 기록을 보지 못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겼던 유교 사회의 임금들에게 이토록 강력한 견제 수단이 또 있었으랴. 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자기의 기록이라니!

This is similar to the "Joseon wangjo sillok", which is one of the major archives. The recordings carried on for 472 years from King Taejo through King Cheoljong. This massive record collection includes 64 million characters in 1893 volumes of 888 books, and it is considered as the world's greatest history book. "Daemingsillok" of the Ming Dynasty or "Daeqingyeokjosillok" of the Qing Dynasty could not reach 300 years. Japan has "Mundeoksillok" and "Samdaesillok" that recorded the achievements of only a few of their emperors; however, they cannot be compared to "Joseon wangjo sillok" in scale. Nevertheless, the true value of "Joseon wangjo sillok" is not its scale, but its impartiality. The officers, who were authorized to keep the records, were not mere secretaries, but instead, they were professional government officers with independence and secrecy. They fully recorded the kings' actual circumstances and tyranny, and not just their accomplishments. Moreover, the kings were strictly prohibited from accessing or modifying these records. None of the kings of Joseon could see their records or the records of the preceding kings. What could have been a more powerful monitoring tool for the

그레이 컬러 한지 석고 디퓨저는 메아리 by 그레이트마이너.
도자 소재 만년필은 권성은 작가 작품, 한지와 더불어 전통 제본으로 만든 노트는 지희승 작가 작품.

왕 스스로도 본인의 일상을 글로 남겼다. 정조 때 시작되어 순종까지 150여 년에 걸쳐 작성된 왕의 일기 〈일성록〉의 분량은 2329책에 이른다. 또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에서도 매일의 나랏일을 〈승정원 일기〉에 기록했다. 광해군까지는 소실되고 인조 이후의 기록만 남아 있지만 그것만 해도 무려 2억4000만 자가 넘는다. 아직도 완역되지 않은 이 일기가 모두 번역되면 우리는 조선이라는 사회를 들여다볼 거대한 타임캡슐을 얻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탁월한 기록물은 왕실 주요 행사의 전모를 담은 '의궤'다. 건축, 도시 건설, 연회 등 다양한 행사 기록들이 담긴 의궤에는 행사 배치도와 참여 인원, 진행 계획도, 물품 수량, 가격, 재질, 제작자, 제작법, 참여자 신분, 복장, 위치 등이 '반차도班次圖'라는 그림과 함께 실려 있어서 그 행사에 얽힌 모든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담은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를 비롯한 조선의 의궤들은 당대의 회화사, 풍속사 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유산들이다.

옛사람들의 남다른 기록 정신은 궁궐 바깥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50대 중반에 시작하여 임종 직전까지 이어졌던 유희춘의 〈미암일기眉巖日記〉(1567~1577년)는 관직 일기인 동시에 아내와의 애틋한 애정 일지였으며 섬세한 가계부이기도 했으니,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글의 행간에서는 글쓴이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진다. 오늘을 가감 없이 기록하여 후대의 좌표로 삼고자 했던 조선 사대부의 의지가! S

부의 의지가! S

kings of the Confucian society who valued honor more than life? The records of themselves that they could not see! The kings also kept their own diaries. "Ilseongnok", which recorded the kings' performances for approximately 150 years from the reign of King Jeongjo through the reign of King Sunjong, has left 2329 books. Seungjeongwon, which is today's office of the secretary, recorded work on a day-to-day basis in the "Seungjeongwon Journal". Another exceptional archive is Uigwe, which recorded the major royal ceremonies of Joseon. Uigwe, along with the records of various ceremonies related to architecture, construction of towns, and banquets, contained the layouts, participants, programs, quantities of supplies, prices, materials, manufacturers, production methods, types of participants, costumes, and positions, among others, with an image called "Banchado", so one can see everything about the ceremonies at a glance. The Uigwe of Joseon, including "Wonhaengeulmyojeongliuigwe" that recorded the 60th birthday of Madame Hong of Hyegyeonggung, is an invaluable heritage that represents the paintings and customs of the old times.

The traditional people's dedication to the records was not much different outside the palace. Hee choon Yoo's "Miam Diaries"(1567-1577), which he started writing in the mid-50s until the time of his death, was a journal of his service as a government officer, a diary of his affection toward his wife, and a detailed ledger of the household management. One can still read the writer's dedication between the lines even hundreds of years later. One can witness the determination of Joseon's nobility to record everything about today in order to provide guidelines for the descendants!

직사각형 백자두부 연적과 선이 고운 백자무릎 연적은 우일요 제품, 나무와 황동 소재로 만들어진 문진은 루미디브릭 by 윤현핸즈

인삼의 내공을 그대로 담아 태어나다
Born with the power of ginseng

땅의 정기를 머금고 맑은 하늘과 호흡하는 인삼의 효능을 그대로 담아 피부 스스로의 힘을 길러준다.
인삼과 설화수가 함께 써 내려간 인삼의 역사와 깊이 그리고 효능에 관하여.

에디터 권지애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퓨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일러스트** 임성구

한 해 농사로 결실을 맺는 작물이 아니기에 인내와 인고의 시간으로 얻어지는 인삼人蔘은 수년동안의 지극히 정성을 다한 노력이 더해졌을 때 탄생한다. 땅의 기운을 통해 생명력을 이루어내는 인삼은 예로부터 신비의 약초로 불리며 그 희소성과 영험한 효능으로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이렇듯 먹어서 좋은 인삼을 피부에 바른다면?' 이 한 줄의 생각으로 시작된 설화수 인삼 연구는 탁월한 인삼의 효능을 피부에 오롯이 전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브랜드의 초석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원료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인삼의 뿌리만을 귀하게 여겼을 때 설화수 한방 과학은 제약과 한계를 넘어선 연구를 통해 뿌리는 물론 인삼 꽃, 열매, 잎, 줄기 등 지하에서 상층부에 이르는 다양한 원료와 그에 따른 탁월한 효능을 제품에 담아내며 인삼 과학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다. 범접할 수 없는 인삼의 효능에 브랜드만의 최신 피부과학, 여기에 고유의 멋과 운치가 더해져 진정한 홀리스틱 뷰티를 완성하는 설화수,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나는 귀한 인삼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Ginseng, which requires a long period of patience and endurance since it is not a crop that is typically harvested after a year of cultivation, is barely born after years of extreme devotion and effort. Ginseng, which realizes vitality through the energy of the soil, has been known as a miraculous herb and treated with value due to its rarity and astounding efficacies. Sulwhasoo's study of ginseng began with the question, "How good would it be to apply ginseng on the skin when it is this effective when eaten?" As a result of the study, we have been able to deliver the full efficacies of ginseng to the skin and made ginseng the foundation and main ingredient of our brand. When many people valued only the roots of ginseng, Sulwhasoo's Korean herbal medicinal science captured in its products the exceptional efficacies of various ingredients from the roots to the flowers including the berries, leaves, and stems through studies beyond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With the unmatched efficacies of ginseng, Sulwhasoo achieves true Holistic Beauty together with the brand's original skin science and unique beauty and aesthetics. Sulwhasoo's beautiful journey with precious ginseng grown in Korea will continue forever.

자음생크림

헤리티지 원료인 인삼의 생명력을
오롯이 담아낸 4세대 자음생크림을
피부 타입과 선호하는 사용감에 따라
오리지널, 라이트 2가지 다른 텍스처와
향으로 만나볼 수 있다.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라이트 각 60ml

1966년 ABC 인삼크림으로 시작, 설화수의 대표 시그너처 제품으로서 전 세계에서 효능을 인정 받은 자음생크림의 새로운 도약에 많은 이들이 설레고 있다. 헤리티지 원료인 인삼이 지닌 효능을 다시 한 번 절정화하며 내면을 더욱 튼실하게 단장했기 때문이다. 50년 인삼 연구의 집약체로 탄생한 이번 4세대 자음생크림은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며 더욱 강화된 인삼 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 활력을 선사한다. 설화수 바이오컨버전기술™을 통해 추출된 인삼 뿌리 속 탁월한 안티에이징 성분인 Compound K의 피부 흡수력을 강화시키고, 인삼 생명력의 모체인 인삼꽃에서 찾은 진세노사이드 Re를 농축 강화하였다. 이러한 최신의 인삼 과학과 새로운 안티에이징 연구를 더해 만들어진 자음생크림은 얼굴의 생기는 물론 내면의 활기를 선사하며 노화감정존을 바로 잡아 주는 진정한 안티에이징을 선사한다. 즉 인삼의 힘을 통해 본연의 젊고 건강한 피부로의 꿈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행복한 소식 한 가지를 더하자면, 풍부하고 영양감 있는 질감과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인삼 뿌리를 닮은 향을 담은 4세대 오리지널 자음생크림과 더불어 즉 효능은 동일하되 산뜻한 질감으로 사용감을 가볍게 하고 인삼 잎과 꽃의 향을 닮은 프레시한 향을 담은 자음생크림 라이트가 새롭게 선보인다. 나이가 아닌 피부 타입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자음생크림 오리지널과 자음생크림 라이트로 피부는 인삼의 강인한 효능과 더불어 격이 다른 젊음을 선사받는다. 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began as ABC Ginseng Cream in 1966, and it has been recognized around the world for its efficacies as Sulwhasoo's signature product. The traditional ingredient of ginseng has been enhanced and refined to its peak effect. The 4th-generation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a product of 50 years of research, enhances the skin's regenerating and defense capacity. It brings back the energy and vitality to the skin with the new and improved essence of ginseng. It has enhanced the absorption of Compound K (the powerful anti-aging formula extracted from the roots of ginseng by using Sulwhasoo's Bio-conversion Technology™) and further concentrated Ginsenoside R (found in ginseng flowers that are considered as the source of ginseng's vitality). Manufactured using the latest ginseng science and new anti-aging studie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achieves true anti-aging for vitality of the face, internal energy, and tranquility of mind. In other words, the power of ginseng has turned the dream of naturally healthy and youthful skin into reality. Here is another good news. In addition to the 4th generation original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with the rich, nourishing texture and the subtle yet heavy scent of ginseng root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Light will be released again with the same traditional ingredient of Sulwhasoo, but in a fresher and lighter texture, as well the fresh scent of ginseng leaves and blossoms. Your skin will experience the powerful effects of ginseng and another level of youthful glow with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Light, which you can choose from according to your skin type and preference, regardless of your age.

자음생크림 사용법
How to use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노화 감정존(이마, 미간, 눈가, 팔자 부위, 입가)
반복적인 표정 습관과 탄력 저하로 유발되는 노화 인지 지점들을 연결한 부위로, 설화수가 제안하는 부드럽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좌우하는 새로운 안티에이징 지표.
Aging Indicators(Forehead, Between the Eyes, Eye Area, Nasolabial Folds, Lip Area) The part that connects all points of aging attributed to repeated facial expressions and loss of resilience. This is Sulwhasoo's new anti-aging indicator that determines how young you look.

Step 1
턱 중앙에서 귀 방향,
입꼬리에서 광대뼈 방향으로
끌어올리듯 마사지한다.
Massage the cream starting from the center of your chin toward the ears and from the corners of your lips toward the cheeks.

Step 2
콧볼에서 눈꼬리 방향으로
피부를 끌어올려 준다. 이때
너무 세게 힘을 주지 않는다.
Then, massage the cream from the sides of your nose toward the area around the outer corners of your eyes.

Step 3
눈꼬리를 지그시 눌러주고
목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린다.
Then, massage the cream from the sides of your nose toward the area around the outer corners of your eyes.

어머니 경대에서 본 듯한 '설화수'와 조우하다

Koo Bohnchang

구 본 창

온화하고 정돈된 표정 탓일까? 사진가 구본창은 자신의 작품 〈백자〉처럼 침잠을 즐기는 선비를 닮았다.
수분을 덜어낸 꽃이든, 영겁의 허공을 품은 백자든 그의 앵글에 들어간 사물은 본질을 드러낸다. 데뷔 30년을 넘긴 그와
인삼 연구 50주년을 맞이한 설화수는 어떤 인연의 고리로 얽혀 있을까? 또 그의 앵글 속에서 설화수는 어떤 모습일까?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JM 08〉, 구본창, 2006

1985년에 데뷔한 작가님을 두고, "한국 사진을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그전까지 한국의 사진계는 왜 예술에 진입하지 못한 건지요? 그 이전까지 사진 하면 보도사진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또 1955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이 기획한 〈인간 가족 사진전(The family of man)〉의 영향으로 전후 한국 사진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물의 군상을 다룬 작품이 주류를 이뤘어요. 얼마 전 작고하신 최민식 선생 같은 분들의 직품 말이죠. 물론 저 이전에도 주명덕 선생이나 김중만 씨 등이 계셨지만, 대다수 사진가들이 자신들조차 사진을 예술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제가 사진가의 감성을 내세운 작품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작가님은 한국 사진의 물길을, 설화수는 한국 화장품 역사의 물길을 바꿔놓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설화수와도 작업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으로부터 과거의 용기들을 전달받아 작업을 했죠.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작업 당시 무척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1960~70년대 화장품 용기를 받아 들고, '어머님 경대에서 본 것 같은데' 하며, 시간 뒤편에 수납되어 있던 기억을 꺼내보기도 했죠.

You and Sulwhasoo have something in common: you changed the flow of Korean photography and Sulwhasoo changed the history of Korean cosmetics. You have also collaborated with Sulwhasoo.
I once worked with past container designs provided by Amore Pacific Museum of Art. I was very pleased to work with them because it was an opportunity to newly interpret the history of cosmetics that represent Korea. When I received the cosmetic containers from the 1960s-70s, I thought, "I think I saw them on my mother's vanity case," and brought out a lot of memories.

You must have been interested in cosmetics since you were younger.
Not really (laughs). But my parents were another link to Sulwhasoo. Sulwhasoo has evolved into a Korean medicinal cosmetic brand based on ginseng. The idea came from Late Chairman Sung-hwan Suh who was from Kaesong, the town famous for ginseng. My parents were also from Kaesong. The people of Kaesong have a very unique regional character. They don't like to owe others anything, but they enjoy helping others. Also, keeping promises is as important as life for them. That must be the famous spirit of Kaesong

소싯적부터 화장품에 관심을 두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웃음) 부모님 얘기가 나오니 설화수와 또 다른 인연을 찾을 수 있네요. 설화수가 인삼을 모태로 한방 화장품으로 진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발상은 인삼의 고장인 개성 출신인 고 서성환 회장님이 하셨고. 제 부모님도 개성분들이시거든요. 개성분들은 참 독특한 지역색을 갖고 있어요. 남에게 신세 지기 싫어하면서 손 벌려 돕기는 즐기고, 또 약속은 목숨처럼 여기고. 그런 게 유명한 개성상인의 정신이 아닌가 싶네요. 오죽하면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들이 유독 개성에서만 상권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모로 각별한 인연이다 싶습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설화수가 향후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지요. 세계적인 브랜드의 공통점은 용기나 로고에서 발견하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는 그런 이미지의 매력에 빠져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것이고요. 지난 50년 동안 설화수가 걸어온 길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설화수'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듯이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서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인을 감동에 빠트릴 수 있는 '이미지'를 더 견고하게 다져나가길 바랍니다.

소설 〈붉은 소파〉의 모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듯 이미 일가를 이루셨지만, 혹시 다른 꿈을 꾸시는지, 새롭게 작가님의 앵글에 잡힌 피사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십 줄에 접어들면서 시작한 〈탈〉과 〈백자〉 시리즈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네요. 비어 있지만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아직 못다 한 말들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될 듯싶네요. 몇 해 전부터는 인류의 공통된 욕망인 '황금'을 어떻게 다룰까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 전 찍은 페루의 잉카 유물처럼 세계 각국의 황금 오브제를 담아볼 생각입니다. 제 등 뒤로 보이는 사진처럼 조약돌에 금박을 해서, 〈비누〉 시리즈처럼 찍어볼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 갈 길이 멀지요.

merchants. Even the Japanese failed to dominate the commerce in Kaesong during the Imperial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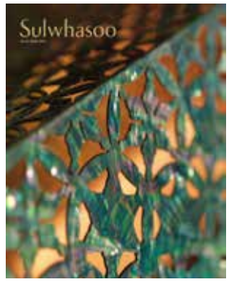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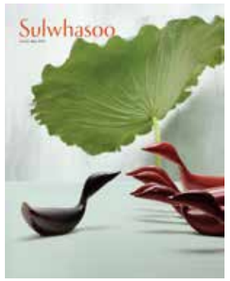
It is a very special relationship in many ways. In the eyes of an artist, how do you want Sulwhasoo to change to prepare for the next 5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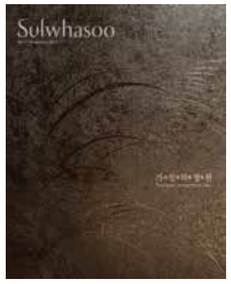
Most world-class brands have charmingly minimal container or logo designs. Consumers all around the world are fascinated by images of these designs and tend to be very loyal to such brands. The path Sulwhasoo has walked on for the last 50 years is absolutely amazing. Since 'Sulwhasoo' is associated with a certain image in peoples' minds, I hope this image solidifies so it impresses more and more people around the world as a global beauty br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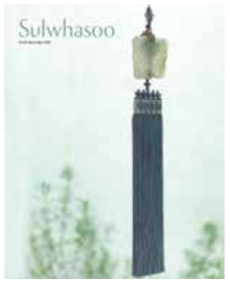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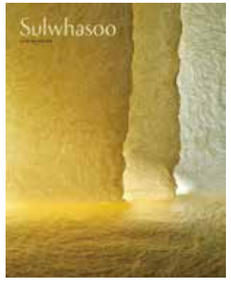
I heard that you inspired the novel <Red Sofa>. You already have a great reputation, but do you happen to have other dreams? Is there any new object captured in your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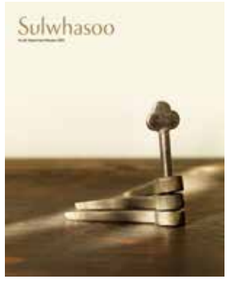
Looking back, the <Mask> and <White Porcelain> series that I started when I turned 50 are already about 10 years old. They are going to continue for little while longer because there are things I have not yet expressed. For the last few years, I have been contemplating how to deal with 'gold,' which is a common desire of mankind. I am planning to capture the world's golden objects, like the Incan relics of Peru. I want to wrap pebbles with golden films as you see in the photos behind me and photograph them under my <Soap> series.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1, 3 구본창 사진가의 작업실에서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오브제들마저 작품처럼 느껴진다. 2 〈탕건〉, 구본창, 2012





구본창 사진가가 촬영한 〈설화문화전〉 작품들은 2011~12년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했다.

용기의 미학을 보여준 설화수
에센셜 라인(좌)과 자음생 라인(우)
또한 구본창 작가의 작품이다.

그게 무엇이든, 시류가 지나면 질리기 쉬운 광속의 시대입니다. 늘 사물의 본질에 천착해온 작가로서 그런 시대적 속성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건 모르겠고 사진에만 국한시켜보자면 이래요. 주문을 받은 상업사진이라고 해도, 저의 손길과 눈길을 거친 흔적이 작품에 반영됐을 때 비로소 완성됐음을 느끼죠. 본질까지는 아니어도, 대상이 나를 거쳐 인화지 속에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호흡으로 숨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3자의 눈에도 그렇게 비치기를 바라고요. 균질한 작품을 위해선 작가 자신이 항상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경지에 오르면 문리가 트인다고 하는데, 작가님의 경우도 그런가요? 제가 부족해서인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을 담기 위해, '빛'과 '배경'과 '순간'이란 장치들을 줄곧 실험하면서, 여전히 수백 컷 중에 하나를 건지기 위한 수고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을 온전히 즐기죠. 천성인지, 누군가가 저의 작업으로 인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일이 무척 즐겁거든요.

끝으로 가까운 시일에 하실 전시회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너무 전시가 많지 않았나 싶어 따로 계획을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자꾸 꼬리를 물더다. 예전엔 박물관의 협조를 받지 못해 백자를 촬영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최근엔 박물관이 자처해서 문을 열어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 시간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S

We are living in an era of super speed where anything gets old over time. As an artist who has concentrated on the essence of objects, what is your secret to overcome this nature of this era?
I don't know about other things, but this is what I think about photography. Even if it is a commercial photograph ordered by a client, I feel that it is barely complete when it reflects only my touch and insights. I need to see that with my influence, the objects are breathing uniquely in the photographic paper. I want others to see this as well. As an artist, I should always maintain composure with 'harmony' and balance' to ensure consistent quality.

They say you will be enlightened at a certain point. Does this apply to you, too?
I'm not sure about that. I am still constantly testing the devices of 'light,' 'background,' and 'moments' to capture what cannot be described with the human language and devoting myself to get the right one amongst hundreds of cuts. I fully enjoy the process, of course. I must be born for this, but it's very pleasing to make someone smile with my work.

Lastly, please tells us about your upcoming exhibition or plan?
I thought I had too many exhibitions lately, so I don't really have any specific plans for now. But work always comes one after another. It was hard to take pictures of white porcelain because the museums were not very cooperative in the past, but the museums volunteer to open their doors nowadays.

집옥재를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만나는
중앙 전시 공간.

궁궐 속 작은 도서관에 들어서니

Stepping into a small library in the palace

위엄과 품격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소박하고
정감 어린 궁궐,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나는
문이 열렸다. 고종 황제의 서재로 사용되었던 '집옥재'를
시민의 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켜 개방한 것. 책 한 권 읽으며
고즈넉한 고궁의 시간 속에 머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문화재청 경복궁

1 만월창으로 내다보이는 풍경이 아름답다.
2 장서각 자료와 영 · 중 · 일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들이 꽂혀 있는 서가.
3 고종의 서재임을 오롯이 느끼며 독서할 수 있는 열람대.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경복궁.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으로 북으로 백악산(지금의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넓은 육조 거리(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진 한양(서울)의 중심이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다가 1867년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500여 동의 건물들이 들어서며 웅장한 모습으로 중건重建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하여 근정전 등 극히 일부 건물만 남았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 자체를 가려버렸다. 다행히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2010년에는 광화문이 원형 복원되었다.

'집옥재'는 경복궁의 가장 깊숙한 뒤쪽의 건청궁 안, 북문인 신무문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집옥재의 역사는 1881년(고종 18) 창덕궁에서 시작된다. 당시 고종의 명으로 창덕궁의 수정전을 '함녕전'으로 이름을 바꾼 뒤, 그 뒤편에 별당으로 지은 것이 집옥재이다. 고종은 1876년 경복궁에 큰불이 나자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1885년 경복궁으로 환궁하면서 건청궁에 집무공간과 거처를 두었고, 서구 열강에 맞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고 나서 1891년 7월 창덕궁의 집옥재와 팔

Everyone should visit Gyeongbokgung Palace at least once in his or her lifetime. It is located by Mt. Baeak (today's Mt. Bugak) as the greatest royal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and its main gate, Gwanghwamun Gate, faces the center of Hanyang (Seoul) through the open streets of Yukjo (today's Sejong-ro). It was burned down in 1592 due to Imjin Waera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ut about 500 buildings were magnificently rebuilt in 1867 under the leadership of Heungseon Daewongun. Most of the buildings, however, were demolished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rule, and very few buildings, such as Geunjeongjeon Hall, remain toda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built to hide the palace itself from people's view. Fortunately, the restoration project began in 1990, an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removed, and the original Gwanghwamun Gate was restored i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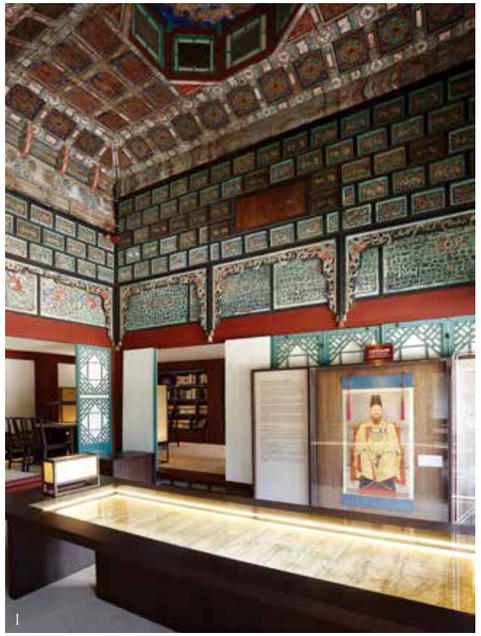
Jibokjae Hall is located in the deepest part of Gyeongbokgung Palace, near Sinmumun, the northern gate, inside Geoncheonggung Palace, which was not its original location. Jibok means "collecting

우정八隅亭, 협길당協吉堂을 지금의 위치에 옮겨 지었다. 책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습득과 개화 정책의 구상을 위해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 장소로 사용했다. '집옥集玉'은 '옥같이 귀한 보배를 모은다'는 뜻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4만 권이 넘는 귀중한 서책들을 모았으며, 도서의 대부분은 서구 근대 문물에 관한 것이었다. 서양의 신학문과 관련된 집옥재의 서적들에서는 개화를 향한 고종의 의지와 시대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지적, 문화적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집옥재는 을미사변 이전까지 개화 정책 추진의 중심 장소로 기능했다.

집옥재는 양옆 벽을 벽돌로 쌓아 만든 청나라풍 건물로, 밖에서 보면 단층으로 보이나 내부는 중2층으로 되어 있다. 팔우정은 팔각 누각으로 기둥 상부에 청나라풍의 화려한 낙양각을 달았다. 1880년까지는 청나라가 거의 유일한 선진 문물 수입 창구였기 때문에, 청풍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집옥재의 현판을 송나라 서예가 미불米連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여 중국풍으로 만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반면 협길당은 고유한 조선 양식 건물로 온돌방을 두어 휴식 장소로 사용했다. 세 건물은 복도를 통해 연결되며, 각각의 특색을 지니면서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집옥재가 개방된 것은 120년 만이다. 건축물의 내 · 외부

jewels as precious as jade," and King Gojong collected over 40,000 precious books, most of which were about the modern civilizations of the west. Jibokjae Hall's books were related to the new philosophies of the west, reflecting King Gojong's determination to attain enlightenment, to undertake deep contemplation on his times, and to develop intellectual and cultural passion. Jibokjae Hall depicts the style that was prominent during the Qing dynasty, with two side walls built with bricks. It looks like a single-story building from outside, but it is actually a two-story building. Parujeong is an octagonal pavilion with the glamorous Qing-style Nagyanggak on top of the columns. As the Qing dynasty was the only channel for the advanced civilizations until 1880, Joseon accepted the Qing style. On the other hand, Hyeopgildang Hall was a traditional Joseon-style building with ondol rooms for relaxation. The three buildings were connected through halls; they were unique yet exquisitely harmonized.

Jibokjae Hall has been opened, for the first time in 120 years. The



1

집옥재 찾아가는 길

위치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도보 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경복궁 남측 : 109, 171, 272, 601, 606, 1020, 7025

경복궁 서측 : 1020, 1711, 7016, 7018, 7022, 7212, 6011, 9703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서가와 열람대, 전시대 등을 새로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조선 시대와 관련된 책 1000여 권과 왕실 자료 영인본 350여 권, 외국인을 위해 영어 · 중국어 ·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책 230여 권이 비치됐다. 집옥재의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종의 초상화, 그리고 장원급제 답안지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대이다. 중앙의 전시 공간을 둘러싸고 서가와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이 자리하고 있다. 집옥재의 창은 중국풍의 만원창과 반월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궁궐의 아름다운 담장과 어우러진 유려한 소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책을 읽지 않고 자리에 앉아 창밖 경치만 감상해도 사색으로 충분한 채움의 시간이 되어준다. 고종이 왜 이곳을 좋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팔우정은 가배(커피) · 녹차 · 생수 등과 책을 파는 북카페로, 협길당은 열람실로 꾸몄다. 집옥재에서는 9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왕실 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사전 예약으로 신청하며, 전통문화의 가치와 선조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작은 도서관으로서, 역사 체험의 공간으로서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우리를 맞는 집옥재. 문화재 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깊이 있는 정감으로 다가온다. S

structure is preserved as much as possible, but shelves, counters, and display racks have been added to create a small library for the public. In its collections are about 1,000 books related to the Joseon dynasty, 350 reproductions of royal resources, and 230 Korean literature books translated into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for foreign visitors. There are shelves and desks around the exhibition space in the center. The windows of Jibokjae Hall are the Chinese-style circular and semi-circular windows, and you can look out to the beautiful walls of the palace and the finely grown pine trees through the windows. Just sitting down and looking out of the windows will revitalize your mind and will move you to meditate. You can understand why King Gojong liked this place so much. Parujeong has been opened as a book café selling coffee, green tea, bottled water, and other beverages along with books, while Hyeopgildang Hall has been turned into a reading room. Jibokjae Hall will open its doors and welcome us as a small library and a place for historical experience. The time that flows into the space of cultural heritage feels more fulfilling.

2

3

1 청나라풍의 화려한 장식과 문양이 펼쳐지는 천장과 고종의 초상화. 2 북카페로 변신한 팔우정에서는 고궁의 정취를 느끼며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다. 3 집옥재와 팔우정, 협길당은 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자연을 품은 거대함, 그 안에서 찾은 自然의 美
The magnificence of nature – The beauty of nature found within

알미우리 만치 아름다운 사계절과 날것 그대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나라, 캐나다.
그 안에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설화수의 아름다움은 눈처럼 서서히 그리고 소복이 캐네디언의 마음속에 내려앉고 있다.

에디터 권지애 사진 토픽이미지

빨간색 단풍의 나라,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인간미가 넘쳐흐르기에 많은 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여행하고 싶어하는 곳 중 늘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넓은 땅만큼이나 야생 버라이어티의 독무대를 여기저기서 만끽할 수 있기에 날것 그대로의 자연과 마주하고 싶은 여행자들의 손에는 늘 캐나다 행 티켓이 들려 있는 것. 더욱이 도시에서 30분만 달리면 대자연과 조우할 수 있어 도시 산책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뿐인가.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오로라 관측지 몇 곳도 지도 안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계절 내내 캐나다는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 달콤한 초콜릿 같은 존재다. 하지만 자연으로만 캐나다를 수식하기에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도시들이 무척이나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한다. 서부의 밴쿠버와 동부의 토론토 그리고 수도인 오타와. 수도마다 특색이 있지만 요즘은 개성 넘치는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눈에 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맥주에 스타일리시한 공간, 감각 좋은 사람들까지. 그중 밴쿠버는 생각보다 훨씬 트렌디한 도시다. 설화수가 캐나다에서 최초로 론칭한 도시이기도 한 밴쿠버는 '자연이 품은 도시'로 불리며 순수한 자연과 도시적인 놀거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는 캐나다의 대표 웰빙 도시다.

Canada, the land of red autumn leaves, is always voted one of the most desired places to live in and travel to, with its heavenly natural environments and the beautiful characters of its people that go well with the surroundings. This is a place where one can appreciate different faces of the wild across the vast lands, so any traveler who wants to confront raw nature never forgets to visit this country. Canada is also popular among urban picnickers, who can confront its great nature in just 30 minutes from the city, and boasts the world's best aura observation sites according to NASA. Indeed, Canada is like sweet chocolate that is hard to resist in any season of the year. Also, the cities representing Canada boast a great variety of colors, not just the colors of nature. There are Vancouver on the West Coast, Toronto on the East Coast, and Ottawa, the capital city. Each city is unique, but Craft Brewery particularly attracts attention these days. There are beers crafted from smart ideas, stylish settings, and sensible people. Vancouver is much trendier than one thinks. The first city in Canada where Sulwhasoo was launched, it is nicknamed "a city nestled in nature" and is Canada's healthiest city, where pure nature is harmonized with urban entertainment and healthy lifestyles.

일몰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모던한 건물과 어우러지며 또 다른 한 폭의 풍경을 만들어 낸다. 밴쿠버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더 선셋 커뮤니티 센터. 이름 모를 화가의 벽화와 버스커가 만들어낸 선율이 거리를 가득 메운다.

가을이 시작되며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던 2015년 9월, 밴쿠버 노드스트롬(Nordstrom) 백화점에 설화수의 첫 매장이 문을 열었다. 단순히 매장을 오픈한 데 그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설화수가 캐나다에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전하고,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아시안 뷰티의 선두주자 설화수를 각인시키게 된 것. 이에 많은 이들이 브랜드와 제품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매장 오픈 4개월 만에 매출 1억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캐나다 서부 지역은 중국계 인구 분포가 높은 편으로, 중국 현지에서 최고의 명품 화장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설화수의 위상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일궈낸 결과이기도 하다. 피부를 보다 가볍게 커버하며 윤기를 부여해주는 퍼펙팅쿠션과 건조한 날씨에 풍부한 영양감을 선사하는 윤조에센스가 선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가운데, 적송의 깊은 생명력을 담은 진설크림과 진설에센스 역시 비교할 수 없는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인기 상승 중이다. 밴쿠버를 기점으로 2016년 9월과 10월에는 동부 지역 토론토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그 기반을 확대, 캐나다에서도 사랑받는 한국 명품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S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는 설화수만의 단아함이 매장 전체에 넘쳐흐른다. 밴쿠버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자리한 설화수 매장.

캐나다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When the autumn leaves were beautifully colored in September 2015, Sulwhasoo's first store was opened in Nordstrom, Vancouver. It was not just any store opening event but was when Sulwhasoo officially introduced the beautiful culture of Korea to Canada, and gained recognition as the leader of Asian beauty, with a global reputation. Many people showed interest in the brand and its products, and the new store achieved KRW 0.1 billion in revenues in just four months. The west coast of Canada has a large Chinese population, which also explains Sulwhasoo's reputation and popularity in the country as the best premium cosmetic brand in Mainland China. Perfecting Cushion for lighter coverage and radiance, and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for rich nutrition against the dry climate, are the greatest hits, while Timetreasure Renovating Cream EX and Timetreasure Renovating Serum EX with the timeless vitality of red pine are gaining popularity as incomparable anti-aging products. Sulwhasoo is planning to open stores in Nordstrom in Toronto in September and October 2016, and is also planning to gradually expand its foundation to set itself as a premium beauty brand of South Korea that is widely beloved in Canada.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누리다

아름다움으로 흘러가는 계절, 그녀를 듣다

The season of beauty listens to her

Ok Joo Hyun

옥 주 현

바람이 분다. 가을이 온다. 그녀가 노래한다. 무엇을 노래하든 우리는 감동할 것이다. 옥주현의 무대가 펼친 그 진정한 이야기에 가슴을 담글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한 계절은 또 한 번 풍덩, 아름답게 물들 것이다.

글 이환길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아침 창문 너머로 바람이 흘러든다. 어디 풀밭을 밟고 왔나. 순한 풀잎의 향이 짙게 배어 있다. 그리오다 언덕쯤에서 빵집 입구도 훑었나보다. 고소한 바게트 냄새가 코를 간질인다. 건너편 골목에서는 연인들의 사랑을 엿듣기라도 했는지 설렘도 가득 묻어 있다. 그렇게 바람을 한 줄 한 줄 느끼며 이어폰을 낀다. 옥주현의 노래를 듣는다. 귓속으로 불어 든 바람이 온몸 구석구석 잠들어 있던 리듬을 깨운다. 오늘을 느끼고 추억할 감각들이 몸을 바로 세운다. 바람마냥 흐르는 대로 마음 닿는 모든 것을 오롯이 감각하며 그 향기를, 소리를,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녀.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아이다〉를 시작으로 〈시카고〉, 〈캣츠〉, 〈브로드웨이 42번가〉, 〈아가씨와 건달들〉, 〈황태자 루돌프〉, 〈몬테크리스토〉, 〈위키드〉, 〈마리 앙투아네트〉, 〈레베카〉, 〈엘리자벳〉, 〈마타하리〉 그리고 현재 공연 중인 〈스위니 토드〉까지 총 13개 작품을 소화했다. 뮤지컬을 향한 그 열정에 먼저 박수를 보내지만, 쉼 없이 무대를 꾸려온 만큼 피로감도 상당할 듯하다. 흔들림 없이 버티는 힘을 물었다. 무엇이 옥주현의 균형을 잡아주었는지.

"반드시 잘해야만 하는 일과 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내 삶 안에 공존했기에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듯해요. 무대 위에서의 나와 무대 밖에서의 나, 관객을 위해 노력하는 나와 자신을 위해 즐기는 내가 함께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거죠." 잘해야만 하는 일이 뮤지컬이란 건 알겠지만, 그녀에게 '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취미'라고 축약해보자. 오래전부터 즐겨온 운동이 그러할 것이고, 얼마 전부터 새롭게 몰두해온 도자 공예가 또한 그럴 것이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 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에요. 그 값진 시간과 물질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

Morning breeze enters through the window. It must have traveled through a grass garden. It has a rich scent of mild grass. Then, it must have stopped by a bakery on a hill. The scent of the baguette tickles the nose. It also has a hint of a fluttering heart; it may have eavesdropped on lovers in the alleyway across the street. I put on my earphones, feeling each line of the breeze. I listen to Joohyun Ok. The breeze into the ears awakens the sense of rhythm hibernating in my body. The senses for feeling and remembering today sit up straight. She delivers the scent, the sound, and the story that she senses along the breeze where her heart leads. She is Joohyun Ok, a musical actress.

Starting with <Aida>, she has performed in 13 pieces in the last 10 years, including <Chicago>, <Cats>, <42nd Street>, <Guys and Dolls>, <Rudolf>, <Count Monte Cristo>, <Wicked>, <Marie Antoinette>, <Rebecca>, <Elizabeth>, <Mata Hari>, and the current <Sweeney Todd>. We should applaud her passion toward musicals, but she must be pretty tired from working on the stage so restlessly. We asked about her unwavering strength; what has kept her balanced.

"I was probably able to maintain balance because there were things that I had to do well in, and things that I didn't have to do well in my life at the same time. Seeing myself on the stage is living with myself off the stage, and seeing myself working in front of the audience is living with myself and enjoying myself." It is easy to understand what she does well, which is appearing in musicals, but what is it that 'she doesn't do well?' Let's say that they are her 'hobbies.' She has been exercising for a long time, and she has newly learned to make porcelain a while ago.

루도 빠짐없이 완성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듯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가야 하는 일이다 보니, 긴장을 해소할 무언가가 또 필요했겠지요. 도자 공예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물장구를 심하게 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물길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흙을 만지다 보면 힐링이 되거든요.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온전한 내가 되는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주죠. 대중의 요구에 의해 판매도 했지만, 그렇다고 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것 자체가 옥주현의 또 다른 타이틀이 돼버리면 그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삶의 밸런스를 깨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대중에게 감동을 꾸준히 전하기 위해 자신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또한 그녀에게는 중요했을 테니, 일을 향한 집중력과 삶에 대한 애정이 또렷이 드러나는 생각이다. 무대와 자신에게 집중할 줄 알기 때문인지, 해가 갈수록 옥주현의 표정과 눈빛은 더욱 환해지고 깊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조화로워지는 듯하다. 속 깊은 그 조화로움. 옥주현은 아름다움의 뿌리를 '집중'에서 찾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아하는 것에 열심히 집중할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죠. 아끼고 사랑하는 일 혹은 그 무엇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 집중은 곧 그녀가 삶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어디서 강하게 몰아붙여야 할지, 어디서 선선하게 약해져야 할지를 잘 알고 삶의 흐름에 순간순간 집중하는 것. 억지로 빛나지 않도록 그저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도록 말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건 흘러가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어렵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려 노

"Audiences invest their time and money to come and see me. I have to try and be perfect every single time in return for their precious time and money. Because I have a huge responsibility, I needed to do something to relieve the tension. Porcelain craft was one of those hobbies. I wanted to go into calming water without having to create so much splash. It is calming when you work with the earth. It's something you don't have to do well, and it allows you to be yourself. I have sold some of my creations upon request, but I don't make them so that I can sell them. It's too burdensome if it becomes another tag attached to Joohyun Ok. I don't want to break the balance of my life just to catch two hares." The journey in search of balance to impress the public all the time must have also been important for her, so this clearly reflects her concentration in her work and love for her life. It is probably because she knows how to concentrate on stage and for herself, but her face and eyes are becoming brighter and deeper year after year. Her beauty on the inside and outside seems to become more harmonious over time. Joohyun Ok finds the root of her beauty in her 'concentration.'

"Anyone must be like this. They look most beautiful and healthiest when they concentrate on what they like. You unveil your own beautiful color when you focus and pour your energy onto your work, or anything you care for and love." Her concentration leads to how she deals with life. She knows when to be serious, and when to be easy-going to concentrate on each moment of

력해요. 마냥 싱그럽기만 하던 20대는 지나갔고, 어떤 게 성숙한 것인지 몰라 헤매던 시기도 있었겠죠. 이런 모든 일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력 말이죠.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저는 코가 무척이나 예민해요. 화학적인 향기가 강하면 거부감부터 들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향과 기운이 섬세하게 배어 있는 설화수가 제 피부와 몸에 잘 맞듯이 뮤지컬 배우로서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완성해 관객에게 선보였으면 좋겠어요." 덧붙여 그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뮤지컬은 사람의 이야기다. 그 무대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선과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다.

"그 배역의 삶을 잘 따라갈 때, 배우로서 신뢰가 생기겠죠. 옥주현이 아닌 그 주인공, 그 이야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런 의지가 있다 보니 무대 밖에서 사람을 만나도 보이는 단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모습 이면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캐릭터를 이해하려는 고민이 타인을 이해하려는 습관으로 확장된 거죠."

열정적이지만 소모적이지 않고, 아름답지만 인위적이지 않은 그녀의 이야기. 가을을 몰고 오는 바람처럼 또 어떤 색깔을 우리의 가슴에 흩뿌려줄지. 그것이 빨갛든 노랗든 하얗든 우리는 그녀의 무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물들어갈 일이다. S

---

her life. This way, she can be naturally beautiful without any artificial light.

"What is most natural is to admit and accept the flow. It's hard, but I try to accept the flow. I'm no longer fresh in my 20s, and there was a time when I wandered not knowing how to be mature. I'm talking about the effort to naturally accept all of the flow. It's just like your cosmetic products. I have a very sensitive sense of smell. I don't like it when I smell the strong scent of chemicals. Since Sulwhasoo is great for my skin and body with a natural scent and energy, and without anything artificial, I want to be seen as a natural person on stage, and not an artificial being." She also talks about 'people.' A musical is a story about people. The stage is filled with many people. And the actors and actresses must touch people. Nothing is possible without the observation and efforts to understand people.

"I would gain trust as an actress when I follow the lives of my characters. I want to be an actress who is truly impressive, so the audience can see the characters and the stories instead of me, Joohyun Ok. That's why I have developed a habit to observe people and see their other sides even outside the stage. The contemplation to understand characters has expanded to the habit of understanding others."

This is her story; passionate yet not consumable, and beautiful yet not artificial. What would be the color she sprinkles in your heart as the wind of autumn breezes by? Whether it is red, yellow, or white, we should naturally be colored by it on stage.

메이크업 손희정(보보리스 02-549-0988) **헤어** 서언미(보보리스)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유돈초이(02-542-2035), 딘트(1600-3177), 세인트더보스(02-3442-0220), 모노톡시(02-508-6033)

맛나는 소통의 공간에 머물다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자 먹는 즐거움, 식도락의 운치까지 느낄 수 있다. 가을과 함께 감성으로 가득 찬 공간인 식탁에서 흩어져 있던 가족애를 하나로 모아 옹기종기, 도란도란 훗훗한 풍경을 만들어보자.

에디터 권지애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자연의 숨결과 어우러지며 유쾌한 웃음꽃을 피우다

자연주의 삶을 영위하고 싶지만 녹록지 않은 도시인들을 위한 자연감성지수 200퍼센트의 식탁 데커레이션. 식탁과 의자 그리고 소품들 모두 나뭇결과 색 그리고 향기까지 담고 있다. 식탁 위에 신선한 꽃 한 송이 역시 작지만 큰 자연 소품이다.

왼쪽 페이지 1 벽에 걸려 있는 체크무늬 패턴의 전통 마미체는 백경현 장인 작품으로 근대화상회 2 하얀 실로 엮은 순정 빗자루와 검정 실로 엮은 쓸털이는 모두 이동균 명장 작품으로 근대화상회 3, 4, 6, 9 대나무 소재 냄비 받침, 대나무 문양 세대접시와 뚜껑이 있는 호박 바구니, 손잡이가 달린 대나무 바구니 모두 한창균 작가 작품으로 소생공단 5, 11 대나무 합은 다이닝오브제, 앞쪽 꽃무늬 패턴의 왕골 접시는 삼합93으로 강화도령화문석 7 말총과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미체 커피 필터는 백경현 장인 작품으로 근대화상회 8 아이보리색 도자 저그는 김세열 작가 작품 10 쌓아놓은 잡물 모시 바구니는 김강열 장인 작품으로 근대화상회 12 월넛 다이닝 테이블은 비아인키노.
오른쪽 페이지 1 스몰 우드 망고 볼은 ENRICO by 커먼키친 2 비대칭 도마와 손잡이가 없는 도마는 모두 PILLIGA by 다이닝오브제 3, 11 뒤편 서랍장 위 옻칠 손잡이 원형 볼과 테이블 위 민트 컬러 옻칠 접시는 모두 허명욱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4 노란색 캔들 홀더는 UMBRA SHIFT by 루밍 5, 8, 17 월넛과 브라스로 제작된 서랍장, 월넛 벤치, 다이닝 테이블 모두 비아인키노 6 은은한 색감의 쿠션은 플랫포인트 7 벤치 형 의자에 놓여 있는 코트 리넨 담요는 wwweekendin by 챕터원 9 대나무 옻칠 2단 도시락은 강희정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10 아프리카 올리브 우드 미니 종지 by 커먼키친 12 박달나무로 만들어진 볼은 굿핸즈굿마인드(청담점) 13 매트한 소재의 화이트 세라믹 화병은 덴스크 14 골드 나뭇잎 모양 트레이는 자라홈 15 나무 옻칠 컵은 박성철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16 손잡이 있는 우드 원형 받침은 이무규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우드 소재의 커피 스쿱은 루미디브릭 by 윤현핸즈 18 월넛과 가죽으로 포인트를 준 스툴은 양웅걸 퍼니처 스튜디오 19 한지 펜던트 조명은 이은혜 작가 작품.

식감의 깊이를 더해주며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재구성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식탁 풍경 역시 시시각각 달라진다. 식탁이 놓여 있는 공간을 캔버스라 여기며,
캔버스 이곳저곳을 좋아하는 색감으로 칠해보는 즐거움, 생각보다 크고 깊다. 각기 다른 컬러 의자를 배치하고
식탁 위에는 젊은 도예 작가들의 전통의 미를 더한 파스텔 식기, 여기에 포인트가 될 명도 높은
소품들을 매칭한다면 한 폭의 유화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 커키색의 페인트 벽은 DEA172 Camouflage(카무플라주)로 by 던에드워드 노현정

왼쪽 페이지 벽에 걸린 그림은 MaillonN으7 유경이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그레이 우드 체어는 HAY by 라콜렉트, 블루 우드 롤 체어는 플랫포인트, 옐로 홈런 체어는 카리모쿠 by 리모드, 연핑크색 투 톤 컵과 그레이 소서는 모두 장미네 작가 작품, 민트 이바지 찬합은 박미경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그레이 컬러의 옻칠 트레이는 오유미 작가 작품, 패브릭 가리개는 아티스트프루프, 입구가 살짝 좁아지는 블루와 옐로 화병은 모두 TORTUS COPENHAGEN by 덴스크, 베이지 작은 볼과 연핑크 디저트 볼, 베이지 투 톤 컵, 민트와 레몬 굽 접시 모두 장미네 작가 작품, 긴 육각 형태의 옻칠 트레이는 오유미 작가 작품. **오른쪽 페이지** 오렌지 컬러 펜던트 조명은 지엘드, 보르도 컬러와 그린 컬러 체어는 모두 HAY by 라콜렉트, 겹쳐진 그레이와 브라운 플레이트, 우드 커팅 보드는 모두 플랫포인트, 베이지색 머그잔은 장미네 작가 작품, 주물 냄비 꼬꼬떼 시나몬과 미니 꼬꼬떼 머스터드는 모두 스타우브, 다각형 옻칠 트레이는 오유미 작가 작품, 우드 커틀러리 피크닉 세트는 칠몽 by 해브빈서울, 블루와 옐로 색상의 옻칠 오방색 윤슬잔은 모두 정은진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대나무에 옻칠한 타원형 도시락은 강희정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코퍼 커피 메이커는 Tom Dixon by 10꼬르쏘꼬모.

모던한 공간에 드리워진 품격 있는 전통의 미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보다 심플하고 모던해진 식탁 공간. 트렌디한 스타일에 맞춰 벽의 컬러를 어두운 톤으로 바꿨다면 빈티지 화이트 컬러의 식탁으로 반색의 세련미를 주거나 같은 톤의 블랙 식탁으로 감성의 의기투합을 모색해보자. 여기에 모던한 라인과 디자인으로 화룡점정 소품으로 도자 식기나 달 항아리 등을 데커레이션한다면, 어느 공간 부럽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앞쪽과 선반에 놓인 백자 달 항아리 모두 이기조 작가 작품. 간결한 곡선이 매력적인 블랙 리얼 테이블은 잭슨카멜레온, 호박 합은 이정미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백자 육각 다관과 찻잔, 백자 새 오브제, 팔각 백자 디저트 볼 모두 우일요, 12각 3단 백자 도시락은 이기조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테이블 위의 팔각 볼, 낮고 넓은 라운드 백자 접시 모두 이기조 작가 작품. 그레이 자카드 블랭킷은 THE ORGANIC COMPANY by 덴스크. 비취 원목의 블랙 그리드 체어와 블랙 리얼 선반장은 모두 잭슨카멜레온, 블랙 우드 푼토 체어는 라콜렉트, 백자 볼과 화병은 모두 노솔 작가 작품.

바람을 가르는 갈대의 소리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시인 신경림의 〈갈대〉는 시작점을 찾을 수 없는 슬픈 모습이지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은 한없이 아름다운 청향의 절정이다.

에디터 권지애 **사진** 이종근

갈대, 습지에 피어난 아름드리 시인

물의 흐름이 멈춰버린 습지에서 자라난 갈대들은 땅속에 줄기를 굳게 내리고 큰 군락을 만든다. 군락은 가을이 되면 풍경의 장관이 되어 갈대 물결을 만들어낸다. 한바탕 바람이라도 스쳐 갈 때면 갈대밭은 더욱 매력적이다. 잎사귀들이 서걱대고 꽃술이 춤을 춘다. 햇살마저 바람이 되어 갈대밭 안에서 흩어진다.

이리저리 흐드러진,
바람결에 흐트러진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기에 변심한 여인의 비유로 등장하지만, 갈대의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요동쳤던 마음에 잔잔한 안정이 찾아온다. 눈을 감으면 더욱 그러하다.
귀로 듣는 갈대의 소리에는 맑은 향기가 더해지며 청향의 기쁨을 만끽하게 한다.

메마른 가을에 누리는
호사로운 윤택함

옥죽과 꿀의 완벽한 조화로 피부에 활력을 선사하는 옥용팩은 한 번의 사용으로도 맑고 깨끗해진
피부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자연에서 얻은 한방 향이 어우러져 피부에 진정한 휴식을 선사한다.
건조한 환경으로 지친 피부에 밤사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 활기 있게 되살려주는 여윤팩.
다음 날 아침에 만나는 촉촉한 피부는 기대 이상의 윤택함을 선사한다.

옻칠 도시락은 강희성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추석입니다,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세요
It's Chuseok: share the abundance

아무리 각박한 시대라 하지만 으레 추석이 되면 인심은 넉넉해진다. 가을 수확의 풍요로움을 함께 모여 나누는 시간 역시 웃음꽃이 활짝 핀다. 같이 먹기에 더 맛있는 추석 음식, 작은 도시락에 담아 소박한 파티처럼, 그렇게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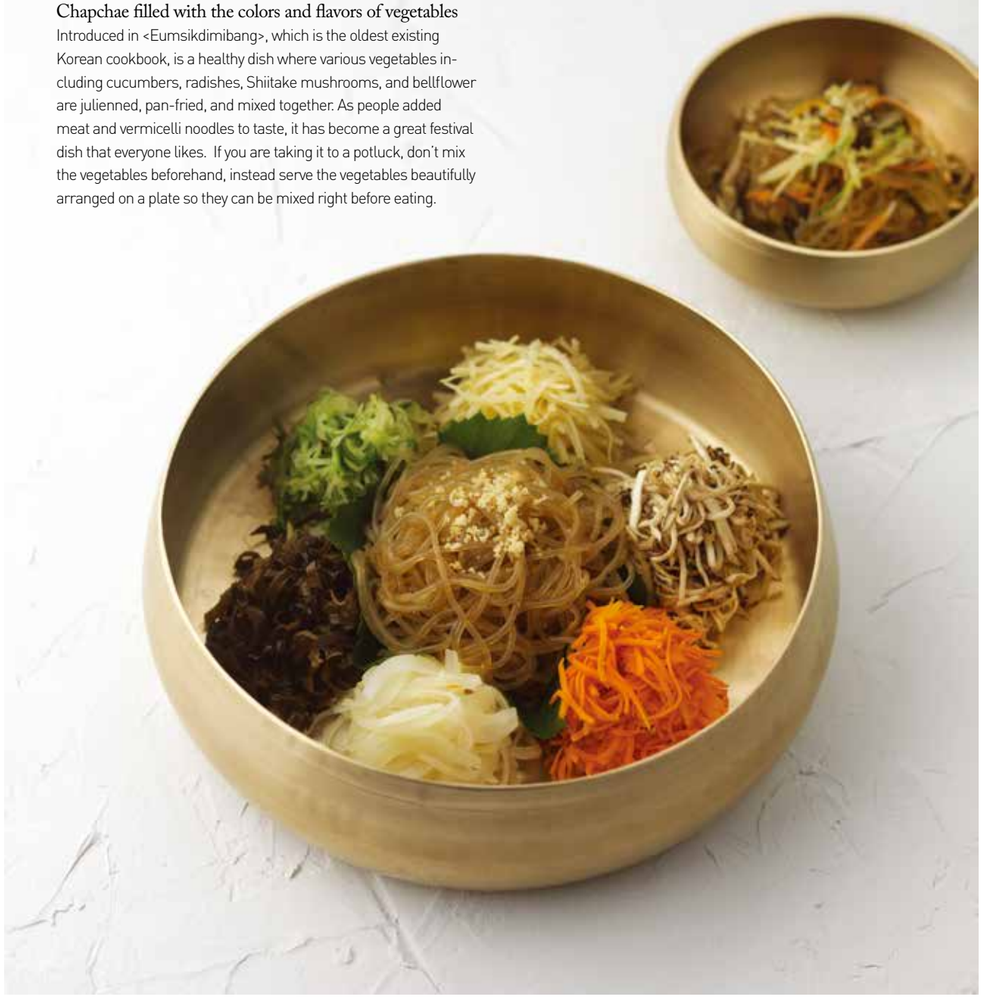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애 사진 이종근

풍성한 야채로 색과 맛을 즐기는 잡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조리서인 〈음식지미방〉에 수록된 잡채는 오이, 무, 표고버섯, 숙주, 도라지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을 각각 채 썬 후 볶아서 담아 내는 건강한 요리 중 하나다. 취향에 따라 고기와 당면 등을 넣고 호불호가 없을 만큼 맛이 좋기에 빠지지 않은 잔치 음식. 포트럭으로 싸서 갈 때는 한꺼번에 버무리지 말고 볶은 채소들을 보기 좋게 담아 가는 센스를 잊지 말 것.

Chapchae filled with the colors and flavors of vegetables

Introduced in <Eumsikdimibang>, which is the oldest existing Korean cookbook, is a healthy dish where various vegetables including cucumbers, radishes, Shiitake mushrooms, and bellflower are julienned, pan-fried, and mixed together. As people added meat and vermicelli noodles to taste, it has become a great festival dish that everyone likes. If you are taking it to a potluck, don't mix the vegetables beforehand, instead serve the vegetables beautifully arranged on a plate so they can be mixed right before e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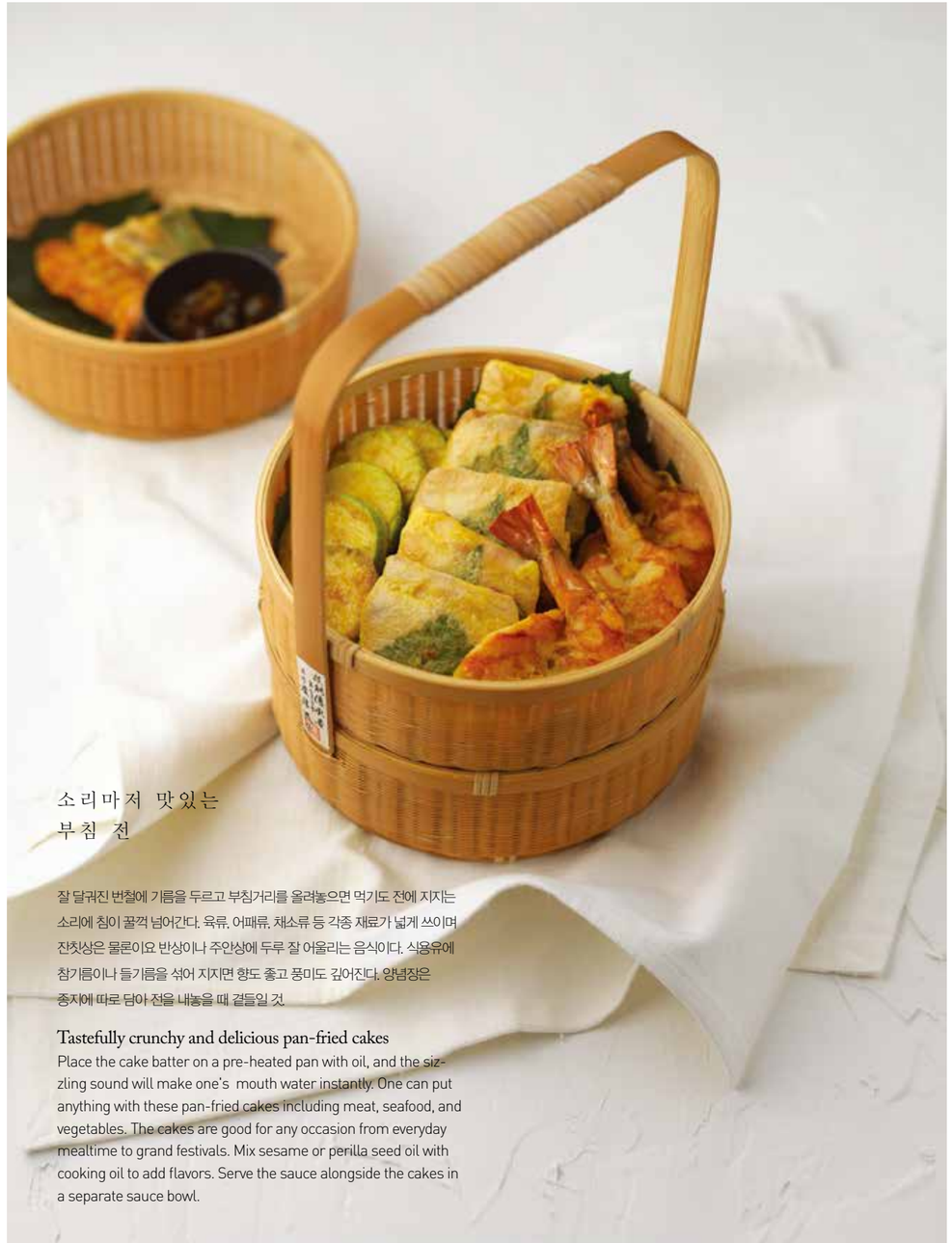


손 안에서 조물조물 곱게 빚은 송편

"손바닥에 굴리고 굴려 새알을 빚더니/손가락 끝으로 낱낱이 조개 입술을 붙이네/금반 위에 오뚝오뚝 세워놓으니 일천 봉우리가 깎은 듯하고/옥 젓가락으로 달아올리니 반달이 둥글게 떠오르네." 조선 시대의 방랑 시인 김삿갓도 송편을 예찬할 만큼 송편은 작지만 맛깔나다. 반죽할 때 다진 대추가루와 송홧가루를 넣으면 너무나 아리따운 색송편을 만들 수 있다.

Songpyeon beautifully kneaded in your hands

"Rolled into little balls on the palm / Clam mouths added with fingertips / Placed on the golden plate like a thousand peaks smoothed on top / Served with jade chopsticks to call up the rounded half moons." As the Wandering Poet Kim Sat-got from the Joseon Dynasty once acclaimed, Songpyeon is small yet delicious. One can make colorful Songpyeon by adding finely chopped dates and pine flowers.



소리마저 맛있는 부침 전

잘 달궈진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부침거리를 올려놓으면 먹기도 전에 지지는 소리에 침이 꿀꺽 넘어간다.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각종 재료가 넓게 쓰이며 잔칫상은 물론이요 반상이나 주안상에 두루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식용유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섞어 지지면 향도 좋고 풍미도 깊어진다. 양념장은 종지에 따로 담아 전을 내놓을 때 곁들일 것.

Tastefully crunchy and delicious pan-fried cakes

Place the cake batter on a pre-heated pan with oil, and the sizzling sound will make one's mouth water instantly. One can put anything with these pan-fried cakes including meat, seafood, and vegetables. The cakes are good for any occasion from everyday mealtime to grand festivals. Mix sesame or perilla seed oil with cooking oil to add flavors. Serve the sauce alongside the cakes in a separate sauce bowl.

추석날, 남녀노소 밥도둑 떡갈비

궁중에서 임금님이 즐긴 고급 음식이었던 떡갈비. 모두가 준비해 온 추석 음식 중에서 단연코 인기 최고일 터. 쇠고기를 다져 만든 모양이 떡을 닮아 붙은 이름으로 먹는 사람은 편하지만 만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맛과 영양 가득한 일품 요리로, 추석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감 큰 음식이니 두툼하고 튼실하게 만들어 갈 것.

Ddeokgalbi, everyone's favorite on Chuseok day

Ddeokgalbi used to be a premium dish enjoyed only by the kings in the palace. It must be the most popular dish during Chuseok celebrations nowadays. It is called Ddeok (rice cake) because beef is finely ground and kneaded into cakes. It is easy to have, but it is not so easy to make. But it is still a premium dish filled with taste and nutrition that one cannot miss on a Chuseok day, so make it thick and solid.

입에서 살살 녹는 두툼한 떡갈비

Delicious Ddeokgalbi that melts in your mouth

재료 다진 고기 400g(4인분 정도), 떡갈비 밑간(양파 즙 · 참기름 · 설탕 약간씩), 양념 소스(간장 · 파 · 마늘 · 후춧가루 · 참기름 약간씩)

만드는 법

1 다진 고기에 만들어놓은 떡갈비 밑간 양념을 넣어 20~30분간 간이 잘 배도록 둔다. 이렇게 하면 연육 작용으로 고기가 더욱 부드러워진다.

2 1에 수분을 잡아주고 찰기를 더해줄 찹쌀가루와 다진 밤, 잣, 대추를 넣는다.

3 모든 양념과 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손맛을 더해 버무린다.

4 3을 먹기 좋은 크기와 두께로 만들어 기름 두른 팬에서 구워준다.

Ingredients Ground beef 400g (4 servings), Ddeokgalbi seasoning (onion juice, sesame oil, sugar), marinade (soy sauce, green onions, garlic, pepper, sesame oil)

Recipe

1 Add Ddeokgalbi seasoning to ground beef and set it aside for 20-30 minutes until thoroughly seasoned. This will make the meat more tender.

2 Add sweet rice powder, chopped chestnuts, pine nuts, and dates to absorb excess moisture and add stickiness.

3 Mix by hand so all the marinade and fillings combine.

4 Knead 3 pieces into bite-sized cakes and cook in a pan seared with oil.

1

2

3

4

도시, 호수의 잔잔함을 품에 안다

Chuncheon & Taupo

춘천 & 타우포

고인 물결 안으로 잡히지 않는 시간을 잡아둘 수 있을 것만 같은 환상이 인다.
호수만의 고즈넉함과 풍요로움이 가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준다.

에디터 권지애 **사진** 토픽이미지, 게티이미지

여름의 부산함에서 탈출한 소양강 위, 오리 보트의 한적한 날갯짓. 낚시터로 유명한 의암호에서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다. 단풍으로 물든 남이섬에서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모래사장을 뜨겁게 달구던 태양의 기고만장이 한풀 꺾이고 나면 어느새 가을이 문턱으로 다가와 있음을 느낀다. 여름의 부산함에 손사래 치며 기거를 즐겨 하던 이들은 가을 여행의 묘미를 알기에 설렘 하나 짊어지고 춘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게 된다. 봄 춘春, 내 천川, 즉 '봄이 오는 시내'라는 이리도 어여쁜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을이면 호수와 봉긋한 산들에 둘러싸인 춘천은 가을날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선사하기에, 우연히 마주친 애인처럼 잔잔한 떨림마저 전해준다. 한때 청춘의 이정표로 그리고 한류 열풍으로 인해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 되었지만 발품 더해 돌아보면 아름답기 그지없는 곳, 바로 춘천이다. 마치 춘천처럼 '호반의 도시'라는 수식어가 꽤나 어울리는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도,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타우포는 도시라고 하기엔 자연이 타운 전체를 뒤덮고 있다. 타우포를 둘러싸고 있는 타우포 호수는 서울의 전체 면적과 비슷할 정도로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호수로도 유명하다. 오래전 거대한 폭발로 생긴 이곳은 자연이 주는 절경과 더불어 요트와 번지 점프 등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의 성지로, 춘천과는 닮은 듯 다른 호수를 품고 있다.

강 따라 끝없이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 1970년대 돌 조각가가 타우포 호수를 돌다 나온 절벽을 발견하고 조각하기로 결심해서 만들어진 마우리 절벽 조각의 경이로움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You can feel that fall is just around the corner when the scorching sun burning the sand beach has surrendered. Those who refused to go outside during the height of summer start getting on a train to Chuncheon with a load of excitement because they know about the beauty of traveling in fall. In fall, Chuncheon, which means 'a stream of spring,' gives you the excitement of running into your loved one on the street because of Chuncheon's picture-perfect view surrounded by lakes and low hills. It has always been crowded with tourists as a milestone of the young generation and the Korean Wave, and you will find how beautiful it is once you take some time to look around. Among a number of cities in the world that goes well with the description of 'a lake city' as Chuncheon, Taupo in the northern island of New Zealand is hardly a city because it is covered with natural settings. Lake Taupo around Taupo is known as the largest lake in New Zealand that is the same size as Seoul and extends beyond the horizon like a sea. Created a long time ago by a massive explosion, it is a sacred land of exquisite views and outdoor activities including yachting and bungee jumping. Its lake has many things in common with the lake of Chuncheon, but also remarkably different.

춘천시에 위치한 산토리니 카페에서 만나는 낯설고도 낯익은 그리스의 감성.
춘천을 더욱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스폿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계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대동강 수계의 평양이고 둘째로 춘천의 소양강 수계를 들고 있으니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맥국 때 터의 일이다." 이중환의 〈택리지〉를 살펴보면 춘천의 상서로운 기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춘천의 물줄기는 생명의 이로움뿐만 아니라 문화를 전이시키는 동맥이기도 하다. 특히 춘천을 호반의 도시로 만든 의암호는 신현강 협곡을 막아 의암댐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으며,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야 도착하는 소양호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소양강댐과 선착장이 있어 유람선 관광도 즐길 수 있다. 물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근사한 산들이 만족을 주는 곳, 바로 춘천이다.

거대한 타우포 호수를 둘러보는 데만 페리를 이용해 1시간 남짓 걸리지만 지루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고인 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타우포 호수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풍광을 사람들에게 선물한다. 투명한 호수 한쪽, 수많은 요트 사이로 도도한 자태의 블랙 스완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편견과는 다른, 큰 행운으로 다가온다. 오래전 거대한 폭발로 생긴 대형 칼데라 호수의 위용 앞에서 날렵한 들숨을 쉬고 나면, 시간을 안내하는 듯 유유히 흐르는 물결 앞에선 안도의 날숨과 더불어 순간으로 물드는 호수의 아름다움에 미소 짓게 된다. S

액티비티의 천국답게 타우포에서는 스릴 만점의 운동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맑고 깨끗한 타우포의 하늘을 배경으로 사람도 하나의 풍경이 된다.

If you look into Joong Hwan Lee's <T`aengniji>, you can realize the auspicious energy of Chuncheon. The water streams of Chuncheon are the veins that transmit not just the benefit of life, but also culture. Lake Uiam, which makes Chuncheon a lake city, blocks the valley of Sinhyeon River around Uiam Dam and Lake Soyang on a winding road that is a destination for a cruise ride with the magnificent view of Soyanggang Dam and the dock. With its marvelous mountains, Chuncheon is a place that satisfies even those who are not very fond of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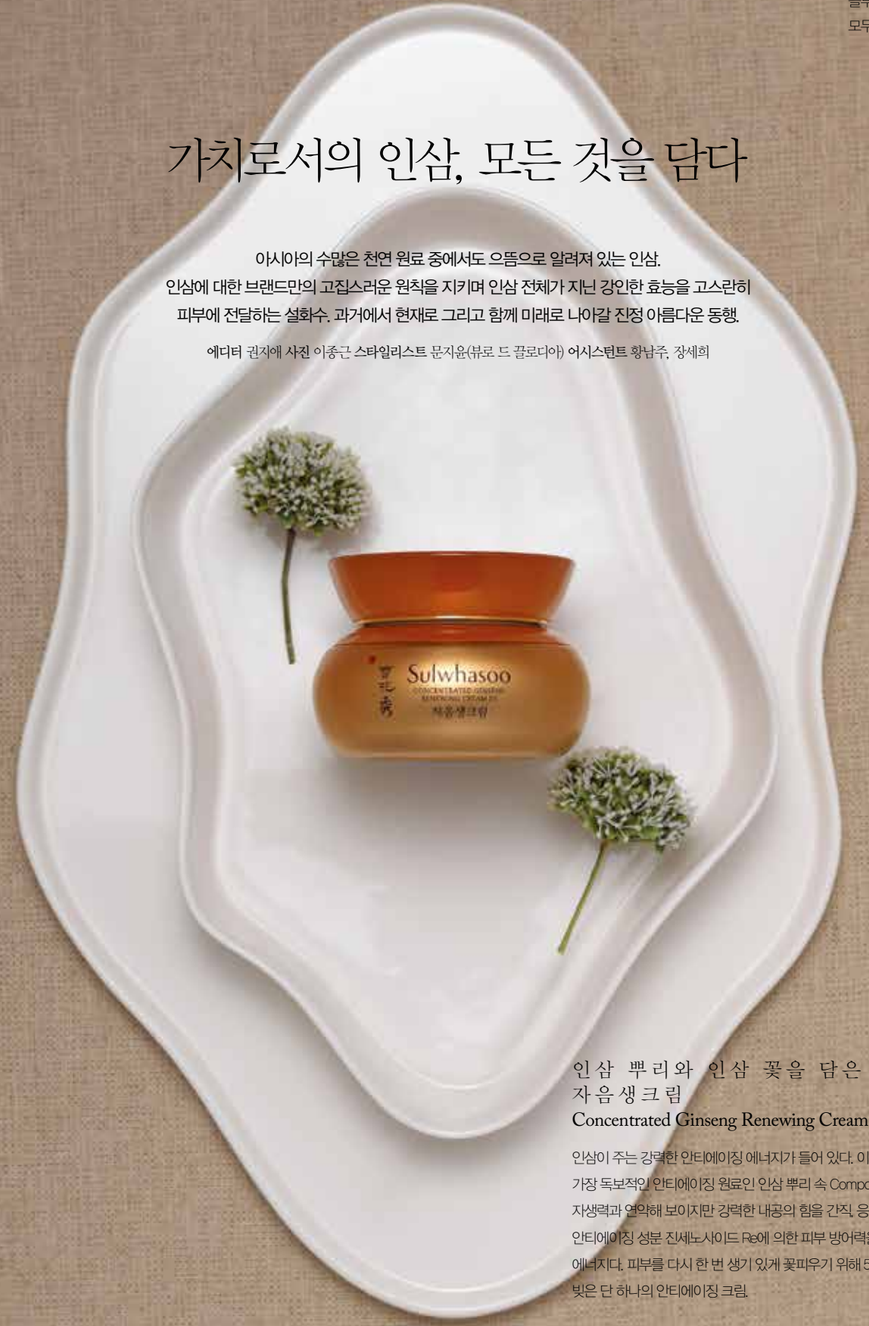
It takes about an hour to look around Lake Taupo aboard a ferry, but there is nothing tedious about it. Lake Taupo changes constantly according to the weather, so the water is far from being static. You may be lucky enough to come across a beautiful black swan amongst the countless yachts on one side of the clear lake. Once you take a deep breath by the dignified Lake Caldera that was created a long time ago by a great explosion, you will breathe out as a sign of relief and grin at the view of a lake that instantly colors the water flowing slowly yet ceaselessly as if it is guiding the time.

물 흐르는 듯한 곡선 라인의
블루밍 접시와 플레이트는
모두 이정은 작가 작품.

가치로서의 인삼, 모든 것을 담다

아시아의 수많은 천연 원료 중에서도 으뜸으로 알려져 있는 인삼.
인삼에 대한 브랜드만의 고집스러운 원칙을 지키며 인삼 전체가 지닌 강인한 효능을 고스란히
피부에 전달하는 설화수.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진정 아름다운 동행.

에디터 권지애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인삼 뿌리와 인삼 꽃을 담은
자음생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인삼이 주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에너지가 들어 있다.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독보적인 안티에이징 원료인 인삼 뿌리 속 Compound K에 의한 피부 자생력과 연약해 보이지만 강력한 내공의 힘을 간직, 응축된 인삼 꽃 속 안티에이징 성분 진세노사이드 Re에 의한 피부 방어력을 지닌 인삼 안티에이징 에너지다. 피부를 다시 한 번 생기 있게 꽃피우기 위해 50년 인삼 헤리티지로 빚은 단 하나의 안티에이징 크림.

앏은 도자기 판 접시는 이세용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
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새싹삼의 정기를 담은
수율크림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풍부한 수분을 공급함은 물론 피부에 시원한 수분 그늘을 형성해 뛰어난 진정 효과를 선사하는 수율크림에서는 어리지만 강력한 새싹삼의 효능을 느낄 수 있다. 새싹삼은 피부 수분 장벽을 강화, 피부에 흡수된 보습 성분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효능으로 수분 공급에 뛰어난 맥문동, 지친 피부를 케어하는 자작나무 수액과 함께 피부를 언제나 물을 머금은 듯 촉촉하게 완성해준다.

피부 탄성을 위한 인삼 캡슐의 힘,
자여진에센스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피부 속 탄성막이 무너지면 생기기 시작한 잔주름은 줄기가 가지를 치듯 뻗어나가 깊은 주름, 접힌 주름까지 심화된다. 이러한 주름줄기 현상을 케어하며 피부 탄성을 올려주는 힘이 바로 50년 인삼 연구의 노하우와 캡슐화 기술이 만난 진셰니스피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크로 진셰니스피어™와 에센스에 녹아 있어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력을 높인 마이크로 진셰니스피어™가 만나 피부 탄력을 끌어올려 준다.

일곱 가지 모양으로 제작된 백자
티라이트 캔들 홀더는 김윤지
작가 작품으로 청와대사랑채.

인삼 씨에서 찾은 깊은 보습감,
자음생진본유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일 년에 단 한 번 채취하는 하나의 인삼 씨에서 미량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분이 들어 있다. 인삼종자유가 피부의 방어력을 높이고 극심한 피부 건조를 케어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준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동백유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미유(참깨를 압착해 얻은 에센셜 오일)를 더해 윤기가 살아 있는 맑은 피부를 선사한다.

단아함이 흐르는 백자 원형
접시는 이민수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갤러리.

천삼화 홍삼과 인삼 열매를 품은,
예생본진액
Invigorating Ginseng Extract Ampoule

혈행과 피로개선에 도움을 주어 온몸에 흐르는 건강한 생기와 활력을
채워주는 홍삼 진액 앰플 속에는 천삼화 홍삼의 범접할 수 없는 효능이 들어 있다.
또한 4년 이상 된 인삼에서 생애 단 한 번 열리는 빨갛게 숙성된 인삼 열매로부터
얻은 진생베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

귀한 단삼과 홍삼의 절정,
다함설크림
Harmonizen Regenerating Cream EX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발아가 쉽지 않아 거의 사라질 위기였던 귀한 한방 원료인
단삼을 복원하여 적용한 최초의 제품이기에, 깊은 효능의 울림이 더욱 강하게
전달된다. 피부 재구성을 통해 젊고 건강한 피부로 복원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소생크림. 단삼을 비롯, 홍삼으로부터 효소 처리하여 얻은 희귀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피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를 선사한다.

홍삼을 올린 백자 굽 접시는
이세용 작가 작품, 백자 낮은 굽
접시는 이정미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굽 있는 백자 볼은 이민수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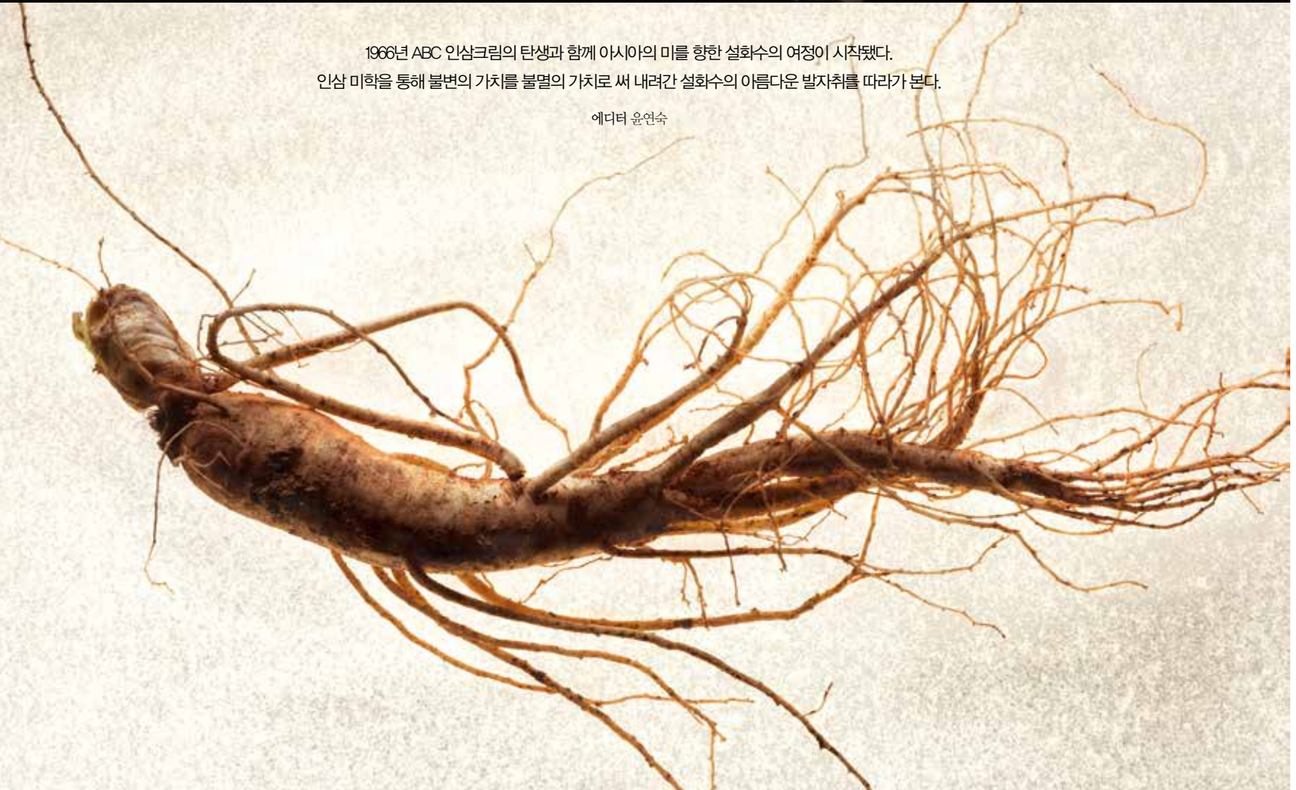
피부 빛의 발현, 백삼을 담은
자정미백에센스
Snowise Brightening Serum

투영하게 빛나는 어린 빛. 세계 최초 인삼 유래 미백 성분인 백삼
사포닌과 피부 빛을 발현하는 데 유효한 보습 성분을 기존 대비 25배
순도로 높여 추출한 백삼 농축 다당체가 만나 피부 친화적인 미백 효과를
선사한다. 1차원적인 미백 효과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속이 다른 미백
케어를 실현하여 볼륨 브라이트닝 효과를 고스란히 전한다.

아름다움의 초상 설화수 50년의 기록
50 Years of Sulwhasoo History, the Portrait of Beauty

1966년 ABC 인삼크림의 탄생과 함께 아시아의 미를 향한 설화수의 여정이 시작됐다.
인삼 미학을 통해 불변의 가치를 불멸의 가치로 써 내려간 설화수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에디터 윤연숙



먹어서 좋은 인삼이라면 피부에 발라도 좋지 않을까?
Eating ginseng is beneficial for health. What about applying it to the skin?

사람의 형태를 닮은 인삼. 그래서 그 효능이 더욱 신비로운 인삼. 그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려 인삼의 귀한 효능을 어떻게 하면 피부에 이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설화수 한방 연구의 역사는 시작됐다. 장원粧源 서성환 회장은 오늘날 설화수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인삼으로 유명한 개성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동백기름을 제조하는 장인이었던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일을 배우고, 좋은 원료를 고르는 안목을 키웠다. 청년으로 성장해 자신의 화장품 회사를 설립한 장원은 1960년, 더 넓은 식견을 쌓기 위해 프랑스로 향했다. 향수의 고장으로 유명한 그라스(Grasse)를 돌아보며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식물 재배는 경제, 문화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식물이자 어린 시절 향수가 깃든 '인삼'의 효능을 활용한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한다. 당시 인삼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 적이 없었기에 연구원들을 백지 상태에서 인삼의 피부 효능을 연구해야 했다. 인삼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뽑아내 그 효능과 효과를 찾아냈다. 마침내 1966년 인삼을 원료로 한 화장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설화수의 모태가 된 'ABC 인삼크림'이다.

How could the precious benefits of Korean ginseng, which has been acknowledged around the world, be used to benefit the skin? This question led to the quest of Sulwhasoo's historical research in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under Sung-hwan Suh (pen name: Jangwon) created today's Sulwhasoo. Growing up in Kaesong, a city known for its ginseng products, he learned to choose quality ingredients under the strict teaching of his mother, who was a master of camellia oil. The young man established his own cosmetic company, and traveled to France in 1960 to broaden his insights. He looked around Grasse, a town known for perfumes, and realized that 'cultivating plants that represent a country is an attractive pursuit to boost economy, culture, and beauty.' At the same time, he promised himself to produce cosmetics using the benefits of 'ginseng,' a plant that represents Korea and reflects his childhood memories. Since ginseng had never been used in cosmetics, researchers studied the skincare benefits of ginseng from scratch. They finally succeeded in producing a cosmetic product formulated with ginseng in 1966, which was then called 'ABC Ginseng Cream,' from which today's Sulwhasoo originated.

설화수 인삼 연구,
피부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다
Sulwhasoo's study on ginseng brings amazing vitality to the skin

최고 품질의 고려 인삼만을 고집하는 설화수. 1966년 ABC 인삼크림으로부터 설화수로 진화해온 50년의 시간은 고려인삼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진세노믹스™(Ginsenomics™)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인삼의 뿌리부터 머리까지 모든 부위를 연구해 인삼에 숨겨진 다양한 피부 효능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부위별 효능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재배법과 가공 기술, 피부 전달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다. "먹어서 좋은 인삼을 피부에 발라도 좋을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설화수는 인삼을 먹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 효능이 발현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인삼 사포닌 가운데에서도 실제 피부 효능을 내는 유효 성분은 일반적으로 추출이 어려울 만큼 극미량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희귀 사포닌 중 '컴파운드 K(Compound K)'가 피부 안티에이징에, '진세노사이드 F1(Ginsenoside F1)'이 피부 미백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설화수는 첨단 생명공학을 접목해 Compound K와 Ginsenoside F1을 추출하고, 피부에 깊숙이 흡수되는 효능 성분으로 바꾸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두 성분을 피부에 깊이 흡수되는 활성 사포닌으로 전환하는 독보적인 인삼 가공 기술, 바이오컨버전기술™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설화수가 인삼의 최고 효능 성분을 피부에 전할 수 있는 이유다.

Sulwhasoo is stubborn for choosing only the highest quality Korean ginseng. Ginsenomics™, the comprehensive study on Korean ginseng's miraculous properties, conveys 50 years of research through which ABC Ginseng Cream has evolved into Sulwhasoo since 1966. It has studied all the parts of ginseng, from the roots to the head, to reveal its various skincare benefits, along with the methods of cultivation, processing, and delivery that can maximize its skincare properties. In search of the answer to the question, "Would ginseng, which is good for the body, be good for the skin?" Sulwhasoo began studying ginseng's benefits upon inges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inseng saponin, which are active in the skin, are generally found in extremely small amounts, thus it is difficult to extract. Among the kinds of rare saponin, Compound K is great for skin anti-aging, while Ginsenoside F1 is exceptional for skin brightening. After that, Sulwhasoo applied advanced bioengineering to extract Compound K and Ginsenoside F1, and convert them into active substances that deeply absorb into the skin. The Bio-conversion Technology™ was created as an original ginseng processing technology that converts these two substances into active saponin for deep absorption. This is why Sulwhasoo can deliver the utmost benefits of ginseng to your skin.

설화수 인삼 연구의 정수가 오롯이 담긴
설화수의 발자취
The history of Sulwhasoo reflects the essence of its research on ginseng

1966

설화수의 모태 'ABC 인삼크림' 탄생 한국을 대표하는 식물, 인삼을 활용한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창업자 서성환 회장의 굳은 결심은 오늘날 설화수의 모태가 된 최초의 인삼 화장품 'ABC 인삼크림'을 탄생시켰다.

The determined promise of founder Sung-hwan Suh to create cosmetic products that are formulated with ginseng, a plant that represents Korea, led to the creation of 'ABC Ginseng Cream,' the very first ginseng cosmetic product that was the precursor of Sulwhasoo.

1973

인삼 사포닌을 원료로 한 '진생삼미' 인삼 사포닌 성분을 함유한 '진생삼미'는 '한국의 문화와 원료를 담은 제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는 서성환 회장의 꿈이 담긴 제품으로서, 처음 수출된 이후 해외 시장에서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Ginseng Sammi,' in which ginseng saponin is one of the active ingredients, reflects founder Sung-hwan Suh's dream to 'introduce a product that cherishes Korea's culture and ingredients to the world,' and was highly popular in the global market when it was initially exported.

1987

한방 연구의 초석 '설화' 인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방 원료의 효능 물질을 추출하고, 지압법 등 리추얼 요소를 도입하여 1987년 '설화'가 탄생했다. 설화는 '피부에 아름다운 눈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다.

'Sulwha' was born in 1987 after extracting the active substances of Korean medicine, which is based on ginseng technology, and applying ritual elements, including a massage program. Sulwha is a brand that means 'blooming as a beautiful snow blossom on the skin.'

1997

한방 과학과 아시아의 미감을 담은 '설화수' 인삼 연구에서 출발한 아름다운 여정은 아시아의 지혜를 담은 한방 연구의 확대와 진화로 이어지며 설화에 '빼어나다'라는 의미의 '수秀'를 더한 '설화수雪花秀'로 완성되었다.

The beautiful voyage of ginseng studies led to the expansion and evolution of Korean medicinal studies reflecting Asian wisdom, and completed what is now known as 'Sulwhasoo,' adding 'Soo,' meaning 'exceptionally beautiful,' to Sulwha.

2000

인삼 연구의 정수가 담긴 '자음생크림' 출시 1966년 ABC 인삼크림의 DNA를 계승하여 2000년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대표하는 인삼 한방 안티에이징 크림 자음생 크림이 출시되었고, 설화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Succeeding the DNA of ABC Ginseng Cream that was released in 1966,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was released in 2000 as a Korean medicinal anti-aging cream with ginseng representing the brand's heritage. It quickly made Sulwhasoo a cosmetic brand that represents Korea.

2006

프리미엄 라인 '진설' 론칭 적송의 강인한 생명력과 품격을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라인 '진설'에 담아냈다. 적송에서 추출한 효능 성분, 첨단 체형 기술이 집약된 텍스처, 소나무를 닮은 향이 특징이다.

The powerful vitality and quality of red pine was captured in 'Timetreasure Renovation Line' the premium total anti-aging line. It was characterized by the texture that was completed with Sulwhasoo's original advanced formulation technology, the scent that resembled the clear energy of pine trees, and a dignified design.

2015

4세대 윤조에센스 윤조에센스는 1997년 출시되어 2015년에 이르기까지 네 번의 진화를 거치며 20여 년간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사랑받으며 뷰티 루틴을 바꾼 첫 단계 부스팅 에센스로 설화수의 베스트&스테디셀러 제품이다.

It is the first-step boosting serum that has been beloved by Asian women for nearly 20 years, innovating their beauty routines through four upgrades from 1997 through 2015.

2016

4세대 자음생크림 1966년 ABC 인삼크림에서 진화되어 온 자음생크림은 설화수의 대표 안티에이징 크림이자 반세기에 걸친 인삼 연구를 향한 집념의 결정체로 인삼 연구의 진수가 온전히 담겼다.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which has evolved from ABC Ginseng Cream in 1966, is Sulwhasoo's signature anti-aging cream and is the essence of Sulwhasoo's tenacity to study ginseng for half a century. It cherishes the essence of ginseng studies.

홀리스틱 뷰티,
세계를 매혹시키다
Holistic Beauty, captivating the world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04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홍콩 센트럴 빌딩에 부티크 형태의 첫 번째 매장을 열었다. 이후 철저한 준비 끝에 2010년 두 번째 글로벌 진출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고, 뉴욕 최고급 백화점 버그도프굿맨(Bergdorf Goodman)에 입점했다. 설화수는 홍콩과 미국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박차를 가했다. 2011년 중국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태국 · 대만 · 싱가포르,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말레이시아, 2015년에는 캐나다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설화수는 현재 탄탄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중화권이나 아세안, 미주 등 진출 지역에서 모두 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북경을 대표하는 명품백화점 신광천지를 비롯해 북경, 상해 등 주요 도시의 최고급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으며, 올해 100호점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다. 또한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윤조에센스, 자음생크림 등 대표 상품을 필두로 하여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동서양의 공감을 이끌어낸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 전 세계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누고 있다.

In 2004, Sulwhasoo opened its first global boutique store in the Central Building in Hong Kong as a bridge to the global market. After years of preparation, Sulwhasoo chose the U.S. as its second destination in 2010, and opened a store in Bergdorf Goodman, a high-end department store in New York. Sulwhasoo expanded farther in the global market with the experience and confidence gained in Hong Kong and in the U.S. Starting with China in 2011, it successfully launched its products in Thailand, Taiwan, and Singapore in 2012, in Indonesia, Vietnam, and Malaysia in 2013, and in Canada in 2015. Sulwhasoo has achieved stable growth with its competitive products in all areas of global business including the Greater China, ASEAN, and North America. In China, its products are sold in the most high-end department stores in major cities such as Beijing (in the city's signature department store, Shin Kong Place) and Shanghai. Sulwhasoo's 100th store is set to open this year. In ASEAN countries, Sulwhasoo is widely loved with its signatur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Sulwhasoo's Holistic Beauty has won the hearts of both East and West, allowing it to share true beauty with the world.

아시아의 지혜를 담은 홀리스틱 뷰티
살아 숨쉬며 미래로 향하다
The future of Holistic Beauty from Asian Wisdom

인삼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아시아의 미를 향한 50년의 여정은 설화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고 있다. 건강한 숨과 간절한 손으로 만든 인삼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뤄내며 축적된 시간 위에 오늘의 열정과 노력을 더하고, 설화수만의 시각으로 내일을 바라본다.

아시아의 지혜를 담은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는 지난 50년의 시간을 끊임없이 흘러 깊고 넓은 물줄기를 이루었다. 설화수 50년 인삼 헤리티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지역적, 정치적, 관념적 장벽은 물론 세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감동적인 아름다움으로 널리 퍼져갈 것이다. 또 다른 50년, 아시아의 미를 향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S

The journey in the last 50 years toward Asian aesthetics in one's faith in ginseng reflects Sulwhasoo'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oday's passion and efforts on top of the innovation accomplished based on ginseng studies resulted in healthy lifestyles, and tomorrow is filled with the promise of Sulwhasoo's original perspective.

Sulwhasoo's Holistic Beauty with Asian wisdom has flown ceaselessly in the last 50 years, creating a deep and broad product line. Sulwhasoo's ginseng heritage will continue. It will continue to spread with impressive beauty beyond generations and space, as well as regional, political, and conceptual barriers. The journey toward Asian beauty in the next 50 years has already begun.

설화수의 새로운 50년을 기약하다

설화수는 브랜드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지난 7월 27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해 ABC 인삼크림부터 이어진 50년의 발자취를 나누고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견發見, 정성精誠, 만개滿開, 절정絕頂이라는 큰 주제 아래 브랜드의 헤리티지 원료인 인삼에 대한 철학과 최고의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개발된 설화수만의 과학기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브랜드 역사,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서의 세계 각지에서 이룬 성과를 보여주는 공간 구성을 통해 50년의 여정을 모두 선보였다. 이번 50주년 행사는 8월 대만과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9개 국가에서 릴레이로 개최, 현지 미디어 및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 9월에는 싱가포르의 메트로 파라곤, 태국의 시암 파라곤 등 설화수가 입점해 있는 백화점의 주요 접점에서 해외 고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설화수는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시아의 뷰티 브랜드로서의 드높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2020년 아시아 시장 1위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글로벌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 신비롭고 장엄한 인삼 상징물은 전시 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했다. 2 세계 최초의 인삼 성분 화장품 'ABC 인삼크림의 탄생'. 3 ABC 인삼크림과 진생삼미 용기를 50주년 상징물로 제작해 전시 공간의 길을 밝혔다. 4 설화수의 50년 역사와 현재가 영상으로 펼쳐진 컨퍼런스 행사장. 5 1966년부터 2016년까지 설화수 대표 제품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인삼 헤리티지 포토월이 행사장 입구에 마련됐다. 6 자음생크림을 사진에 담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기자들. 7 설화수 인삼 연구 50년의 집약체, 4세대 자음생크림과 자음생크림 라이트가 공개됐다.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상담실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익히다

일상의 꿈과 소망을 그리다

모 던　민 화

전통 민화의 형식을 취하되, 현대의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다루는 모던 민화를 만나는 시간은 남다른 즐거움이 된다. 대중 예술이었던 민화에 담긴 진솔한 감성과 자유로운 미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친근하게 다가온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서하나 작가

민화란 실용을 목적으로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을 말한다.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한 화가들이 그렸다고 전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통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자유로운 상상력과 밝고 명랑한 색채, 소박하고 익살스러운 소재들이 다양한 예술적 감각으로 버무려져 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전통적인 형식을 과감하게 또는 무심하게 파괴하고 재구성하며 독특한 매력을 뽐내는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접하고 기억하는 민화는 대부분 조선 후기에 그려진 것이다. 당시의 민화는 일상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집을 단장하기도 하고 액을 쫓거나 수복강녕壽福康寧을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새해에는 대문 앞에 용과 호랑이 그림을 붙여 잡귀를 쫓았고, 부부의 방에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도牡丹圖나 한 쌍의 새가 정답게 노니는 화조도花鳥圖, 다산과 다복을 상징하는 어해도魚蟹圖를 걸어 집 안을 장식했다. 아이의 방에는 효孝나 충忠 같은 글자를 쓴 문자도文字圖를 걸어 가르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장례식 같은 특별한 날에도 민화로 만든 병풍을 둘러 잔치의 분위기를 돋웠다. 이렇듯 민화는 예로부터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 예술이었다.

민화의 현대적인 재해석, 전통 민화에 현대 일상을 얹다

전통의 생활 속 예술이었던 민화를 현대의 생활 속 예술로 들여온 '모던 민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평면 작업을 하는 화가 서하나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쉽고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서하나 작가. 조선 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민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해 '모던 민화'라고 직접 이름 붙이고 최초로 모던 민화 시리즈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컬러링 북 〈모던민화〉를 출간하기도 했다.

"모던 민화는 전통 민화의 정서와 동시대적인 요소들이 함께 담겨 있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려본 경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1

2

3

4

5

인삼꽃무늬 찻주전자
모던 민화 그리기

준비물 한지, 분채, 봉채, 먹물, 붓, 아교 액

1 한지에 붓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충분히 말린 뒤에 아교 포수(종이 전체에 아교 액을 발라 채색 시 번지지 않게 하는 것)를 한다.
2 원하는 색상의 안료를 아교 액에 개어 알맞게 농도 조절을 한 뒤, 주전자 전체 밑색을 칠한다.
3 열매와 잎에 색을 입힌다.
4 바림(그러데이션)을 하여 색에 깊이감을 준다.
5 세필을 이용해 선 정리를 깔끔히 하여 완성한다.

평면 작업을 하고 있는 서하나 작가의 모던 민화 클래스 : 일일 수업과 정규 수업이 있으며, 전통 채색 재료들을 익히며 일상 속에서 그림 그리기의 재미를 느끼고 그림을 가까이하는 시간을 선사한다.(위치 : 지하철 2호선, 9호선 당산역에서 도보 5분 / 문의 : seohanaa@gmail.com / www.seohana.com)

서하나 작가의 아름답고 재기발랄한 모던 민화 작품들은 전통 그대로 한지에 분채(가루 형태의 채색 물감)나 봉채(먹처럼 갈아서 사용하는 채색 물감)를 활용해 채색하지만, 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책가도冊架圖 형식에 펭귄 출판사의 펭귄 로고를 비롯해 클러치백, 선글라스 등 소품을 넣어보거나, 석류도를 식탁 위에 연출해보는 것 등이다. 찻주전자나 접시 위의 조각 케이크, 의자와 소파 등 일상용품에 전통 민화가 지닌 아름다운 무늬와 색감을 표현해냈다.

민화는 한 번에 채색하는 그림이 아니라 밑색을 칠하고 마르면 겹겹이 색을 올려 덧칠해 원하는 색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색과 색이 부딪히며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은 즐겁기만 하다. 민화 그리기에서 특이한 점은 아교를 사용한다는 것. 아교는 일종의 접착제로 물감을 종이에 안착시키고 채색할 때 번짐을 방지해준다. 민화의 색채가 아름답고 시간이 오래가도 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교의 역할 때문이다. 물감의 색은 백색, 황색, 적색, 갈색, 녹색, 청색, 흑색 등 일곱 가지 주색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외에 금속 안료로는 금색과 은색이 있다. 보통 일곱 가지 주색으로 농도를 조절해 더욱 다양한 색을 표현하며 붓은 기본적으로 선처리용, 채색용, 바림용 등 세 가지를 활용한다. 물감이 마르고 칠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진다. 정신의 집중과 이완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어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서하나 작가는 모던 민화를 그릴 때 필요한 것은 즐기려는 마음과 자신이 가진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전했다. 모든 그림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심상이 고스란히 그림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생활 속 예술작품, 모던 민화

모던 민화는 오늘날 변화된 생활환경 속에서도 그 옛날 전통 민화가 그랬던 것처럼 실용적인 예술 작품으로 기능한다. 민화가 가진 장식성은 집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포인트 인테리어 소품으로, 민화에 깃든 기복 신앙은 받는 이의 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 되어준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모던 민화는 서하나 작가가 운영하는 클래스에서 배울 수 있다.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3시간 정도면 자그마한 모던 민화 액자를 완성할 수 있다. 꿈과 소망을 상징하는 행복한 이야기를 담고, 정서적 충만함으로 일상을 가꾸게 하는 모던 민화. 이제 모던 민화를 보고, 그리고, 즐기며 생활 속에서 예술을 더욱 가까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모두의 바람처럼 삶이 더 풍요로워질 테니. S

정성과 지혜를 담다
Possessing care and wisdom

**약은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약재를 보관했던 약장 역시 정성을 기울여 제작했다.
약재의 종류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서랍의 연속적 배열은 실용성을 위한 것이지만,
독특한 조형미를 내뿜으며 선조들의 일상에 함께했다.**

에디터 윤연숙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권원덕 작가

'약장'이란 한약재韓藥材를 종류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서랍이 달린 목제 장을 말한다. 약장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병을 고치는 일이 직업화되면서 약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약재를 분류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제작 연대가 오래된 것일수록 폭이 좁고 단순한 형태를 띠며,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약재 가짓수가 늘어남에 따라 규모와 부피가 커졌다. 19세기 조선의 약장은 위층과 아래층이 분리되는데, 윗부분은 작은 크기의 서랍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었고, 서랍 내부는 약재를 분류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되어 있으며, 문 앞판에 달린 둥근 고리 양옆으로 나란히 약재 이름을 써넣었다. 아래층의 밑 쪽에는 여닫이문을 달고 잠금 장치를 하여 인삼 같은 귀중한 약재나 극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가로로 긴 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장을 받치는 받침다리의 중심부에 또 하나의 다리를 덧대어 조선 후기 가구로는 특이한 형태를 보여준다. 약장에는 무병장수에 대한 바람이 칸칸이 담겨 있다.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약을 귀하게 다루고, 생활의 지혜를 담은 목가구로서 일상에 자리했다. 권원덕 작가의 약장은 전통 약장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으로, 나무의 무늬보다는 정사각형의 서랍들이 보여주는 각각의 분할과 반복을 통하여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한 가구다. 약장의 조형미를 독특한 시각으로 아름답게 펼쳐 보이며, 이에 깃든 의미를 현대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S

'Yakjang' refers to a wooden case with several drawers designed to store different kinds of Korean medicinal herbs. Yakjang from the 19th-century Joseon had the upper and lower parts separated. Both ends of Cheonpan(the finishing board on top of a piece of furniture) had rolled ears that are lifted slightly. The top of the upper and lower parts are arranged in small drawers while the inside of the drawers had partitions to classify the medicinal herbs. The names of medicinal herbs were written on either sides of the round ring on the front of the door. The bottom of the lower part had swinging doors with a lock to safely store precious herbs such as ginseng as well as fatal herbs. Another leg between the supporting legs bears the weight of its wide structure. This was a unique design for furniture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Yakjang reflects one's wish for longevity without any illness. It became a piece of wooden furniture reflecting the wisdom of life to handle with care all the medicinal herbs that treat diseases and help people enjoy life.
Yakjang by artist Wonduk Kwon has been motivated by the traditional Yakjang and designed for the users to create their own patterns with the division and repetition of drawers in squares instead of showing the natural pattern of wood. It beautifully displays the formative beauty of Yakjang so you can cherish the special meaning of Yakjang in the modern times.

〈약장藥欌〉, 나무,
121.5x35.5x129.5cm, 19세기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약장(Face÷Line)〉, 권원덕,
ebony, walnut, 200x40x99cm

온 마음과 따뜻한 손이 만든 이야기

도예 브랜드 '이도' 디렉터 원마니

도예 브랜드 '이도'의 원마니 이사는 어머니 이윤신 대표를 도와 이도의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외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했지만, 동양의 정서를 가득 품은 그는 한국의 전통과 옛것을 사랑하고, 고요하게 빛나는 수공예의 가치를 내다본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수작업을 거쳐 완성되는 제품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노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공예 문화의 아름다움을 대중과 공유하고, 한국적인 주제를 활용해 현대적인 감각의 실용적이고 예술적인 수공예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브랜드 이도.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식사 시간에 우리의 전통 도자기 그릇이 놓이기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을 들여 수작업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다. 원마니 이사는 어머니 이윤신 대표의 이러한 철학을 함께 펼쳐나가는 든든한 지원자이자, 젊은 감각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조언자이다.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지는 않아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손주를 보러 저희 집에 오실 때 서로 근황을 묻고 친구들이 수다 떨듯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한두 마디씩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작업을 하고 경영도 하기 때문에 일과 생활이 맞물려 있으신데, 저는 그에 반해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가까이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것들을 알려드리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다섯 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원마니 이사.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디렉터이지만 이 세상 워킹맘들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그는 붓을 잡는다.

"워킹맘이 되고 보니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어 서예를 시작했어요. 서예를 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어주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원마니 이사가 소개한 애장품은 2013년 〈설화문화전〉의 아트디렉터를 맡았던 하지훈 작가의 소반이다. 이도 갤러리에서 하지훈 작가의 전시를 했는데,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버무려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하지훈 작가의 작품과 이도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소반이 아주 가깝게 느껴져서 구매를 했다.

"제 침실에는 매트리스밖에 없었어요. 잠을 위한 공간이기에 잠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들여놓기 싫었죠. 그러던 중 휴대폰과 간단한 소품을 올려놓을 것이 필요했던 찰나, 이 소반을 마주하게 됐어요. 소반을 매트리스 옆에 놓아두었더니 침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아하면서도 전통적인 형태가 보이는데, 현대적인 미도 느낄 수 있는 소반은 쓰임이 있지만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 소중하게 여기는 작품이에요."

지난해 이도는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내 한식 레스토랑의 테마 메뉴를 담는 수공예 그릇을 선보여 한국 식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렸다. 또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에서 이를 기념하는 개인전 〈이윤신–흥내낼 수 없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이도의 행보에는 원마니 이사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올해는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수백 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으로 수공예의 가치와 우리 식문화, 우리 그릇을 문화적 자산으로 가꾸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도. 앞으로의 발걸음도 기대된다. S

공간을 비추다, 시공을 감싸다

탁 하고 켜지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진다. 실용성은 물론 디자인 감각을 겸비한 조명으로 높아지는 행복 온도.

에디터 권지애 **사진** 김민은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차분해진 공간을 더욱 무드 있게 만들어주는 조명에 자꾸만 시선이 갑니다. 지극히 심플한 패션에 포인트를 주는 액세서리처럼 저마다의 독특한 조형미와 컬러감으로 공간의 스타일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얼굴 단장을 하기 위해 거울 앞에 앉듯, 마음을 단장할 때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게 되는데요. 아날로그 감성의 묘미를 만끽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클래식한 디자인의 조명이 어떨까요? 독서는 물론 사색의 책상이 될 수 있기에 지나치게 화려한 것보다는 무던한 듯 심플한 조명이 어울리기 때문이죠. 화장대에 놓을 조명은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면 좋을 듯합니다.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빛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스탠드, 펜던트, 포인트 조명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가지 디자인의 조명들. 사용 장소는 물론 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두 빛 하나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에디슨 전구 안에 미니어처 크기의 황동 샹들리에가 들어간 골드 킹 에디슨은 Mineheart by 런빠뉴.

빛나는 한 조각의 다이아몬드처럼 도자의 질감과 더불어 눈부신 아름다움을 담았다. 다이아몬드 펜던트는 이정은 작가 작품.

하나의 기하학 건축물을 보는 듯한 즐거운 착시. 한지와 펠트 소재로 된 'Pixel browm' 조명은 강민지 작가 작품.

한지를 투과한 빛들은 공간을 가득 메우며 은은한 감성을 일깨운다. 작품명은 빛이 주는 아름다운 '선율'로 김주열 작가 작품.

소담한 사이즈의 행잉 조명으로 나무 소재로 되어 있어 어느 공간에서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양웅걸 작가 작품.

마치 책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 애시 탄화목 프레임 한지 조명 시리즈 'The Lamp'는 Calm and Slow by Suh milha.

세라믹으로 제작한 셀 테이블 램프에는 작가만의 재치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대로 녹아 있다. 소품의 격을 높이는 램프는 노경택 작가 작품.

심플한 구와 원기둥이 만나 독특한 조형미를 자아낸다. 불투명 유리 구를 얹은 조명은 MICHAEL ANASTASSIADES by 덴스크.

왠지 들고 다니면 옛날 호롱불의 감성이 피어오르는 듯. 벚나무로 만든 타원형의 오브제 조명은 이노메싸.

붉은 가을의 낙엽이 그대로 조명에 스며들었다. 불이 켜지면 더욱더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조명은 'Flowerpot Vp3' 에이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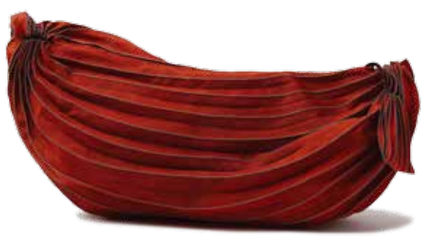
밋밋한 테이블 위에 포인트 액세서리로도 손색없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Amp 테이블 램프는 'Normann Copenhagen' by 이노메싸.

사용된 소재가 주는 반전의 미학. 골판지로 제작된 클래식한 조명은 Graypants 제품으로 이노메싸.

이토록 사랑스러운 단풍 컬러

붉은 듯 노랗고 노란 듯 붉은, 그렇게 계절을 물들이는 단풍처럼 옷 위로 내려앉은 단풍의 다채로운 이야기.

에디터 권지애 **사진** 김민은



옥사로 만든 곡선 주름이 감탄을 자아낸다. 스타일의 화룡점정으로 손색 없는 소목염 이브닝 레드 클러치백은 조하나 작가 작품.

나뭇잎은 붉게 타오르고, 들판의 벼들은 황금물결로 일렁이고, 하늘은 더욱 짙고 파랗게 물드는 가을입니다. 이 중에서도 모두의 탄성을 자아내는 단풍은 단연코 가을을 더욱 가을답게 만드는 컬러입니다. 녹색이었던 식물의 잎이 빨간색, 노란색, 주홍색, 갈색 등으로 변하는 단풍처럼 지루한 색감으로 고민하던 일상의 패션에 색다른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얼핏 보면 강렬한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낮은 명도와 채도로 인해 부담없는 컬러이기도 하죠. 특히 빨간색은 소재에 따라 다양한 감성으로 연출이 가능하기에 옷을 고를 때 연출하고픈 스타일을 먼저 결정한 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황색은 무난한 노란색, 갈색은 물론 의외로, 보라색과 아주 멋진 매칭을 선보입니다. 톤다운된 남청색과 고급스럽게 어울리는 갈색 등등. 매일 입는 옷에 수놓은 가을은 입은 사람은 물론 보는 이를 미소 짓게 합니다. 그럼에도 본인만의 컬러를 고집하고 싶다면, 단풍 컬러로 물들인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 또한 가을을 걸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옹기종기 모여 있는 꽃들의 향기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터키석, 자개, 오닉스 등의 꽃 브로치는 민휘아트주얼리.

가을 상의 위에 레이어드하면 더욱 감각적이다. 한국 전통 천연 염색 팔토시는 온새미로 by 해브빈서울.

가방 안에 잘 익은 감들이 어여쁜 바구니에 담겨 있다. 마치 그림을 그린 듯한 프린트 광목 파우치는 최경주 작가 작품으로 소생공단.

형태와 소재의 다양성이 주는 아름다움! 금속선을 이용, 코바늘뜨기 기법으로 만든 자만옥 목걸이는 김유미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마치 천 위로 색이 물들 듯, 가방 위로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힌 것이 포인트. 실크와 소가죽을 사용한 갈모 주름백은 조하나 작가 작품.

에지 있는 패션의 한 수로 그만이다. 한지사로 만들어진 버건디 컬러 보타이는 김수림 작가 작품으로 KODF 갤러리.

실크 벨벳 리본과 전사 프린트된 폴리에스테르 플리츠 칼라 스카프는 김주형 작가 작품으로 Mano Fino.

전통 소재와 모던한 형태가 만나 세상 단 하나뿐인 그립백으로 탄생. 옥사와 모시 소재 이브닝 그립백은 조하나 작가 작품.

부드러운 소재와 더불어 레드와 그레이의 컬러 궁합이 일품인 실내 슬리퍼. 수면 안대와 세트 구성. 조현하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심플한 라인과 칼라, 허리 부분이 포인트. 특별한 날 드레스로도 손색없다. 리넨 소재 답호는 조영기 디자이너 작품으로 천의무봉.

붉게 물든 노을과 황금 들판을 연상시키는 색감이 탄성을 자아낸다. 장옥정과 산호꽃 진주 머리꽃이는 민휘아트주얼리.

죽음보다 강한 사랑, 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유니버설발레단이 4년 만에 케네스 맥밀런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인다. 특히 20세기를 대표하는 전설적 발레리나이자 현역 최고령 무용수인 알레산드라 페리가 줄리엣 역을 맡아 절제된 심리 묘사와 드라마틱한 안무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영국이 낳은 대표 안무가이자 드라마 발레의 거장 케네스 맥밀런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부터 영국 로열발레단 수석 안무가로 활동한 맥밀런은 장식적 요소가 다분하던 기존 주류 발레와 달리, 스토리텔링을 중시하며 연극적 요소가 강한 드라마 발레를 다수 만들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마치 정밀화처럼 세밀히 묘사한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을 토대로 한 맥밀런의 버전은 등장인물의 감정이 날것 그대로 전달되는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안무로 가득 차 있다. 젊은 연인의 부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발코니 장면이나 줄리엣의 무덤에서 로미오가 추는 그로테스크한 절망의 춤은 발레 초심자의 마음도 단숨에 흔든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국 버밍엄 로열발레단이 현지 공연에서 사용한 무대장치, 의상 디자인이 사용된다. 휘황찬란한 로열발레단의 오리지널 세트보다는 간소하지만 극의 분위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빼어난 연기와 안무로 가슴 떨리는 감동을 선사할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감성 충만한 가을을 맞이하길 바란다.

일시 10월 22~29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70-7124-1737

〈Sulwhasoo〉 독자 선물

유니버설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8시/ R석 3명(1인 2매) 독자 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8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뮤지컬 〈그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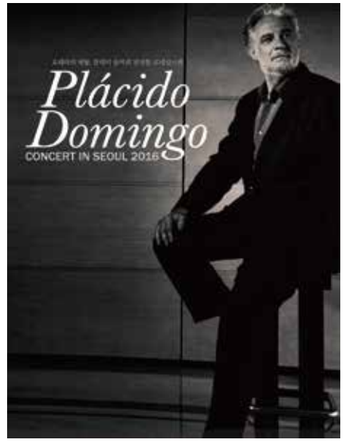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20년 전 사라진 '그날'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린 〈그날들〉은 姑김광석이 불렀던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명곡의 향연과 감각적인 연출, 완성도 높은 스토리로 완벽한 공연을 선사한다. **일시** ~11월 3일까지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1544-1555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

오스카 와일드의 명작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각색한 작품으로 청년 도리안이 자신의 초상화와 영혼을 바꾸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압도적인 실력과 티켓 파워를 지닌 김준수가 주연을 맡았다. **일시** 9월 3일~10월 29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1577-3363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려낸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가 앙코르 공연된다. 그간의 신파형 악극을 탈피하고 젊은 배우들의 캐스팅과 우리 춤과 노래를 대폭 보강하여 완성도와 볼거리를 더한 무대를 준비했다. **일시** 9월 10일~ 10월 30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문의** 02-753-0039



20세기 최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마지막 내한 공연〉

테너와 바리톤의 영역을 오갈 뿐 아니라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뮤지컬 넘버 등의 장르를 넘어서는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악은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 음악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왔다. 그런 그가 마지막 내한 공연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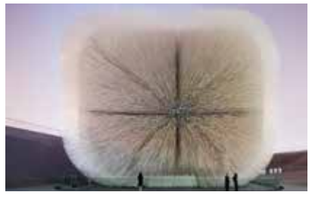
올해 75세를 맞은 도밍고가 지난 2014년 내한 공연을 한 후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도밍고는 1957년 바리톤 가수로 데뷔했고, 1961년 미국에서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로 출연한 뒤 50여 년간 테너로 활동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 밀라노 라 스칼라,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등 전 세계 유수 오페라 극장에서 최고의 테너로 대활약을 펼쳐왔다. 또한 오페라를 넘어 지휘자와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했고, 팝 가수 존 덴버와 함께 최초로 성악과 팝이 만난 곡 'Perhaps Love'로 크로스오버 성악의 문을 열었다. 더불어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영화 〈라 트라비아타〉에 출연해 대중적인 테너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한국에서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전야제에 열렸던 '스리 테너(Three Tenors)' 콘서트를 통해 대중에 각인됐다. 파바로티, 카레라스와 함께한 이 공연 실황 음반은 전 세계에서 1200만 장 넘게 팔리며 역대 최다 판매된 클래식 음반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도밍고는 이번 내한 공연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런던, 밀라노, 발렌시아 공연을 이어간다.

일시 10월 2일 **장소** 잠실실내체육관 **문의** 02-6205-3402

책 〈여행을 믿는다〉

글 쓰는 엄마 이재영이 책 읽기 좋아하는 딸 소울과 함께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순간들을 수다 떨듯 풀어낸 여행기.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가'를 벗어나 '엄마이자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낯선 여행지 풍경 속에서 아이와 이야기하고 걸으며 성찰한 책. **지은이** 이재영 **출판사** 클

전시 〈헤더윅 스튜디오 :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



사고(Thinking), 제작(Making), 소통(Storytelling)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헤더윅 스튜디오가 지난 21년간 세계 곳곳의 시민들을 놀라게 했던 작품 가운데 26점을 엄선,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과 영상 등 프로젝트의 공정을 차근차근 볼 수 있는 전시다. **일시** ~10월 23일까지 **장소** 디뮤지엄 **문의** 070-5097-0020

전시 〈Gathering Clouds〉

정신적인 사유를 다루는 거장 아니쉬 카푸어의 개인전 〈Gathering Clouds〉는 이미지의 반사와 왜곡 그리고 전환을 통해 시 · 공간각 이면의 영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탐구해온 카푸어의 세계관을 살펴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10월 30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국제갤러리 1관, 3관 **문의** 02-735-8449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궁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 주는 고급 클렌징 비누
100g×2 | 42,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 | 35,000원대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 | 90,000원대
90㎖ | 12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촘촘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 |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강화크림
75㎖ | 105,000원대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올리고 피부를 감싸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 | 90,000원대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 | 150,000원대

예소침크림&패치
입가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명의본초앰플
명의진™ 성분이 피부 본연의 방어력을 강화해주는 고농축 앰플
7㎖×5 | 20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주어 깨끗하고 환한 안색을 선사하는 클렌징 폼
150㎖ | 40,000원대

자정스크럽젤
백삼 파우더가 포함된 젤 포뮬러가 맑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스크럽 젤
100㎖ | 55,000원대

자정수
피부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정돈해주어 미백 효능을 끌어올려주는 젤 타입 미백 스킨
125㎖ | 65,000원대

자정수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맑은 안색을 선사해주는 미백 로션
125㎖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삼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 · 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트리트먼트
쿨링 자막 어플리케이터와 매끄러운 텍스처가 눈가를 환하게 밝혀주는 미백 아이트리트먼트
15㎖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 |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 선크림
40㎖ | 75,000원대

여민 라인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밀하게 가꿔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 | 130,000원대

여민마스크
찔레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며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자음생/자여진 라인

자여진에센스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 | 150,000원대
50㎖ | 180,000원대

자음생진본유
인삼 종자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 | 12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인삼 기능성 성분이 또렷하고 함있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인삼 결정체가 노화의 징후를 다스리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자음생크림과 효능은 동일하지만 부드럽고 산뜻한 질감의 안티에이징 크림
60㎖ | 250,000원대

수율 라인

수율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 | 42,000원대

수율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주는 수분 크림
50㎖ | 90,000원대

수율선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선플루이드
50㎖ | 55,000원대

수율선크림
(SPF 50+ / PA+++)
바르는 즉시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수분 선크림
50㎖ | 55,000원대

바디 & 헤어

동백윤모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5g | 40,000원대

연섬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 | 8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수
적송 성분이 즉각 흡수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송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멀젼
125㎖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송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센스
50㎖ | 33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 | 270,000원대

진설크림
적송과 송이의 생명력으로 한결 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
60㎖ | 450,000원대

다함설 라인

다함설크림
단삼과 홍삼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럭셔리 토털 안티에이징 크림
60㎖ | 650,000원대

옵션 라인

설안팩
백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 | 85,000원대

여윤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 | 52,000원대

옥용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 | 42,000원대

청윤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여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 | 42,000원대

예율마사지크림
지친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마사지 크림
180㎖ | 75,000원대

MEN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150㎖ | 30,000원대

본윤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 | 73,000원대

본윤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 | 52,000원대

본윤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 | 90,000원대

릴랙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 | 40,000원대

쿠션

퍼펙팅쿠션
(SPF 50+ / PA+++)
탁월한 커버력으로 잡티 없이 윤기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15g×2 | 60,000원대
(리필 25,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목련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화사한 윤기를 더해주는 안티에이징 쿠션
15g×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 · 수분, 피부 힘 · 톤 · 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 | 60,000원대

CC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 | 60,000원대

채담 메이크업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감싸안듯 부드럽게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0㎖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화이트닝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예서 메이크업

예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 | 55,000원대

예서 스킨커버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쳐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예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답답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예서 파우더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꿔주는 파우더
20g |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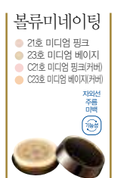
진설 메이크업

진설 윤메이크업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 | 90,000원대

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촘촘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 | 90,000원대

진설 윤팩트
영윤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볼류미네이팅



볼류미네이팅파운데이션
(SPF 35 / PA++)
스킨케어를 바른 듯 피부를 탄력 있게 케어하는 크림 파운데이션
30g | 80,000원대

블루미너스

블루미너스 팩트
(SPF 32 / PA+++)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파우더 팩트
10g | 65,000원대
(리필 48,000원대)

래디언스 블러셔

래디언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혈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립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4명)
헤리티지 원료인 인삼의 생명력을 오롯이 담아낸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워주어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 본연의 건강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관람권(3명)
유니버설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 관람권을
3명(1인 2매)께 드립니다. 10월 27일(목) 오후 8시/ R석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청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응모 마감 2016년 10월 15일까지
증정 선물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로미오와 줄리엣〉 관람권
당첨자 발표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6년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수율크림(4명)
공경선 대전 유성구 노은동
강성의 전남 목포시 호남동
강여진 서울 구로구 도림로
정향숙 충남 예산군 산성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1박 숙박권(2명)
황은경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최인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2016년 7/8월호 당첨자 선물은 9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雪花秀
Sulwhasoo
Sulwhasoo
귀한 적송추출물을 피부빛에 더해
견줄 데 없이 탄탄하게 머금은 윤기를 완성하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인텐스
힘을 잃은 피부에 더한 아름다움은 순간의 빛으로 사라집니다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를 탄탄하게 가꿔주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인텐스
시간이 쌓아올린 고귀한 적송추출물이 피부에 힘을 채우고 피부를 맑게 하는 매화추출물과
피부를 밝혀주는 래디언스 펄 파우더가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해진 탄탄한 윤기피부를 선사합니다
The Truth of Cushion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상담실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Special Gift 엽서를 보내주신 애독자 중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Gift를 드립니다

봉함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1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8-3116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02-3213-2056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주)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광주광역시, 전라도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디큐브백화점 거제점	055-680-0145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1. 펼치다

	7	6	5	4	3	2	1
품격 있는 삶(8p)	7	6	5	4	3	2	1
피부 섬기기(12p)	7	6	5	4	3	2	1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7	6	5	4	3	2	1
新 공간을 보다(22p)	7	6	5	4	3	2	1
건너다(28p)	7	6	5	4	3	2	1

2. 누리다

	7	6	5	4	3	2	1
설화인(36p)	7	6	5	4	3	2	1
어우러지다(44p)	7	6	5	4	3	2	1
설화풍경(50p)	7	6	5	4	3	2	1
설화보감(54p)	7	6	5	4	3	2	1
아름다운 기행(60p)	7	6	5	4	3	2	1
설화수를 말하다(66p)	7	6	5	4	3	2	1
설화 히스토리(72p)	7	6	5	4	3	2	1

3. 익히다

	7	6	5	4	3	2	1
배움의 기쁨(82p)	7	6	5	4	3	2	1
한국의 멋(86p)	7	6	5	4	3	2	1
설화애장(88p)	7	6	5	4	3	2	1
집 안 단장(90p)	7	6	5	4	3	2	1
몸 단장(92p)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98p 참조)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로미오와 줄리엣〉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신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9/10월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강원도, 충청도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신라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신라 김포 면세점	02-2661-3216
제주 신라 면세점	064-710-7324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신세계 김해공항 면세점	051-970-2743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한화 면세점	02-2136-2779
동화 면세점	02-399-3123
삼익 면세점	032-743-0543
에스앰 인천 면세점	032-743-1570
에스앰 면세점	02-2120-6210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청주 국제공항 면세점	043-213-3500
대전 신우 면세점	대전 유성구 온천로 33
수원 앙코르 면세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청주 중원 면세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114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